

## 청신 淸新

전진의 활력은 희망에서 생긴다.

희망의 무지개는 환희가 넘치는 마음속에 떠오른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학회(學會)가 '인재육성의 해'로 정한 1979년 1월 1일자 <세이교신문>에 '희망의 효종(曉鐘)'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했다.

"니치렌 대성인은 어서에서 '소위 남묘호렌게교(南無妙法蓮華經)는 환희(歡喜) 중의 대환희이니라'(어서 788쪽)라고 말씀하셨고, 또 '환희란 선악 함께 환희이며'(어서 735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환희용약(歡喜踊躍)' (어서 722쪽)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불법(佛法)의 위대한 공력(功力)은 괴로움이나 슬픔마저도 희망과 기쁨으로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고락(苦樂)은 결국 하나이며, 오히려 고난 속에서 희망과 환희

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엄연한 승리자입니다."

1979년은 드디어 '일곱개의 종'을 모두 마무리하는 해이다.

학회는 1930년 창립을 기점으로 7년마다 전진의 마디를 새겼다. 그로부터 49년, 목표로 한 일곱번째 종을 모두 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가 왔다.

신이치는 그 청신(淸新)한 출발을 맞이해, 강성한 신심의 힘으로 흥중에 무한한 '희망'과 '환희'를 가득 안고 불요불굴(不撓不屈)의 대전진을 개시하자고 외쳤다.

설날, 신이치는 도쿄 시나노마치의 학회본부에서 열린 신년 근행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일곱개의 종'이 모두 끝나는 1979년을, '광선유포를 향해 다시 출발하는 위대한 기점으로 하고 싶다.'고 힘주어 외쳤다.

"광선유포의 기나긴 도정에서 고뇌의 폭풍우를 수없이 만나는 것은 어서에 비추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신심이 있습니다. 신심은 용기입니다. 수많은 대위업도 모두 이 용기라는 일점에서 실현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용기 속에 진실한 신앙이 있고, 무한한 희망과 성장이 있습니다. 또 시대변혁과 신세기를 향한 전진이 있습니다."

용기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다. 용기 없이는 정의도, 승리도 없다.

이해에도 신이치의 집필활동은 멈출 줄 몰랐다.

월간으로 발간되는 부인잡지 1월호들에서는 <부인클럽>(강담사)에 '내가 만난 훌륭한 여성들'을, <부인생활>(부인생활사)에 '젊은 어머니에게 드린다.'를, <주부의 벗>(주부의 벗사)에 '중국 인상기(印象記)'를, <주부와 생활>(주부와 생활사)에 '서로 믿어주는 부모 자녀사이가 되려면'을 기고했다. 또 <주간동양경제>(동양경제신보사) 신년특대호의 '신년수상'에서는 '마음의 용량'이라는 제목으로 '불법이 설하는 인간생명의 존귀함'을 언급했다.

1월 9일, 신이치는 북국의 추운 북쪽지방인 도호쿠의 미야기현 센다이시(市)에 있는 도호쿠평화회관(훗날 아오바평화회관)에 있었다. 아내 미네코를 비롯해 수뇌간부들은 이런 추운 계절에 도호쿠에 가겠다는 신이치가 걱정스러웠다.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운 지방에는 가장 추운 계절에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고생도 심정도 알 수 없다. 또 신이치는 종문문제로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하루 빨리 만나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광선유포의 치열한 공방전에서는 몸을 던져 싸워야 할 때도 있다.

새해의 출발을 맞이해 1월 5일에 신임인사가 발표되어, 도호쿠총합장을 지낸 아오타 스스무 부회장이 도카이도총합

장이 되었다. 그리고 도호쿠장인 도네 가쿠지가 도호쿠본부장에, 그리고 간토장을 지낸 야마나카 아키오가 도호쿠장에 임명되었다.

신이치는 9일, 도호쿠평화회관에서 대표와 간담을 나누고 미야기현 임시대표간부회에 참석했다. 10일에는 미야기현 신년기념간부회에 참석했다. 이날 미야기현에 '읍면지역지도장' 제도를 설치했다. 이 제도는 '자신이 사는 지역이야말로 광선유포의 본무대'라고 인식하고, 각 읍과 면의 특색에 맞춰 광포운동을 펼치기 위한 준비였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의 장(場)인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광선유포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신이치는 1979년 <대백련화> 2월호에 '지방시대와 광선유포'라는 제목으로 권두언을 썼다.

신이치는 권두언에서 "나라를 알지어다. 나라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도 부정(不定)이니라. (중략) 그러므로 법은 반드시 나라를 생각해서 흥통해야 하느니라."(어서 1495쪽)라는 어서와 함께 '앵매도리(櫻梅桃李)'의 원리를 소개하고 '사람은 각자 개성이 있듯이 각 지방에도 특색이 있어서, 도호쿠에는 도호쿠의 특색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을 넓히는 데도 각 지역의 생활양식이나 전통문화를 존중해야 하며,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면에서부터 훈

발(薰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방시대’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지역을 뒷받침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모두 함께 주체성과 애착, 자부심을 갖고 향토의 번영을 위해 착실히 노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힘주어 말했다. ‘읍면지역지도장’ 제도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마련한, 각 지역의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포진(布陣)이었다.

또 신이치는 자신의 결의를 이렇게 썼다.

"올해도 나는 일본 각 지방을 빠짐없이 돌고 싶다. 또 넓게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벗을 격려하러 달리고 싶다."

그리고 연초부터 가장 먼저 도호쿠로 갔다.

10일, 신이치는 도호쿠평화회관에서 미야기미래회 제1기 결성식에 앞서 멤버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신이치는 어느 지방에 가든, 아무리 바빠도 미래부 대표를 만나 격려하려고 애썼다. 미래는 젊은 세대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영지가 이렇게 말했다.

"1년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일보다 더한 일은 없고, 10년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일보다 더한 일은 없고, 평생 계획으로는 사람을 육성하는 일보다 더한 일은 없다."

신이치는 후계육성에 필사적이었다. 자신의 생명을 깎아 나누어준다는 심정으로 격려했다.

1월 11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와테현 미즈사와에 도착했다. 미즈사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타카미강이 흐르고, 에도시대에는 다테 가문의 가신(家臣)인 루스(미즈사와 다테) 가문의 도움으로 번성했다. 그리고 남부의 철기(鐵器) 생산지로도 유명하다. 또 에도시대 말기의 난학자(蘭學者, 네덜란드어 문헌들을 통해서 서양 학술을 연구하던 학자)인 다카노 조에이를 비롯해 도쿄시장을 역임한 정치가 고토 신페이, 총리를 역임한 사이토 마코토 등 저명한 인물들을 몇 사람이고 배출했다.

신이치가 미즈사와를 찾은 이유는, 새로운 동지를 격려하고 이와테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였다. 미즈사와는 6년 반 만이었다.

신이치가 탄 차가 오후 3시가 넘어 미즈사와문화회관에 도착했다. 3층짜리 흰색 철근콘크리트 건물인 이 회관은 지난해 12월에 완공된, 현대적인 새로운 법성(法城)이었다.

이와테현장인 미나미 가쓰야를 비롯한 간부들이 현관 앞에서 일행을 맞이했다. 신이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멋진 회관이군요. 드디어 이와테의 시대가 왔습니다. 투쟁합시다!"

미나미가 풍채 좋은 몸으로 목소리를 최대한 끌어내어

"예!" 하고 결의를 담아 대답했다.

기온은 영하였지만, 도호쿠의 겨울인데도 신기하게 눈이 내리지 않았다.

신이치는 현관으로 들어가 로비를 걸으며 현관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난해 일본 각지를 다녔습니다. 오사카는 '새로운 오사카투쟁'을 시작해 영원한 상승(常勝)의 도읍을 만들자며 필사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효고는 '21세기 난공불락의 광포성(城)'을 구축하겠노라며 모두 불타올랐습니다. 참으로 든든할 따름입니다. 주부에서 만난 아이치 대표도 투지로 가득했습니다. '견루(堅壘)'의 기개가 넘쳤습니다. 이러한 간사이, 주부와 함께 크게 분투하는 곳이 규슈이고, 그 선구가 후쿠오카입니다. 대단한 기세가 있습니다. 더욱더 전진하고 승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도호쿠가 광선유포의 커다란 무대로 뛰어나갈 차례입니다. 그 견인력이 되는 곳이 이와테입니다. 신시대 건설은 성실하고 인내 강하기로 소문난 이와테 사람으로서만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신이치는 회관 안을 둘러보며 이와테현 간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와테는 더욱더 강해졌으면 합니다. 반드시 승리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먼저 ‘이제까지 사력을 다했으니 더 이상은 무리가 아닌가. 더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마음을 타파해야 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라는 생각에만 빠져 현상에 타협하고 만다면, 투쟁하기도 전에 기심(己心)의 마(魔)에 패배하고 맙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광선유포의 길을 열겠다는 미래도를, 그리고 목표를 정해 성취해야 합니다.

시대는 바뀝니다. 아니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니치렌 대성인 한분만이 제목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일체가 넓혀졌습니다. 현대에도 도다 선생님이 패전의 폐허에서 홀로 일어서셨습니다. 전쟁 후의 광선유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오늘날과 같은 학회의 모습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테를 반드시 광선유포의 모범이 되는 현으로 만들자. 반드시 승리하자.’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원해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기원해야 합니다. 지혜를 용현(湧現)하면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움직인 만큼 우정도, 동지의 연대도, 광선유포도 넓혀집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기원하고, 움직인다.’— 이것을 끈기 있게 환희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여도 이것이 활동에서도 인생에서도 승리를 향한 불변의 방정식입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신이치는 2층 대강당에 들어가자 제목삼창을 하고, 그 자리에서 현간부와 간담했다.

"이와테에서 활동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면적으로는 일본에서 가장 넓은 현입니다. 교통편이 좋지 않습니다. 겨울은 길고 춥습니다. 구습(舊習)도 깊습니다. 그러므로 이와테가 바뀌면 일본이 바뀝니다. ‘어려움’ 속에서 '대변혁'의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펼치는 광선유포의 투쟁입니다."

오늘은 이와테의 큰 비약을 위해, 간부가 자칫하면 범하기 쉬운 문제를 굳이 엄하게 말하겠습니다.

간부는 조직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회원을 부하처럼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학회 조직은 불의불칙(佛意佛勅)의 광선유포를 위한 조직입니다. ‘학회원은 어본불이 맡긴 불자(佛子)’라고 정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자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 이제부터 '지방시대'이기에 초창기부터 지역에서 중심이 되어 분투해오면서 지역의 사정이나 인간관계에 정통

한 간부의 존재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리더를 맡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곳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느 지역에 초창기 때부터 활동한 간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나 '좋다, 싫다'는 감정이 조직운영과 인사 등에 강하게 영향을 끼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그 간부에게 인사하러 가야 했고, 그 간부의 의향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등성이 없어져 새로운 창조의 활력이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에는 광선유포의 단체인 학회조직을 무너뜨리고 전진을 막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중심에서 광선유포를 중심으로 자신을 늘 훈계하고, 좁은 경애의 틀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심자나 후배들을 전면에 내세워 철저히 지키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 새로이 리더가 된 사람들은, 지역에 뿌리내린 초창기 선배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힘을 빌려야 합니다. 토착의 힘과 새로운 힘이 합친다면 이와테는 크게 발전합니다."

시성 타고르는 이렇게 썼다.

“힘이 없으면 번영할 수 없고, 힘은 결합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신이치는 미즈사와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백련그룹, 창가

반, 대학부 대표, 스태프 등과 함께 잇따라 기념사진 카메라 앞에 섰다.

이날은 저녁노을이 아름다웠다. 멤버들이 새해를 기념하는 이와테현 대표간부회에 참석하려고 불타오르는 저녁노을을 받으며 현 내 각지에서 속속 모여들었다.

신이치는 오후 5시부터 대표 약 20명과 간담하며 간부의 자세에 대해 말했다.

"이와테는 명랑하게, 자유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기후와 풍토도 거칠고,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 애쓰고 있으므로 따뜻하게 감싸야 합니다. 또 리더는 동지의 행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진지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간담을 끝낸 신이치는 대표간부회에 참석했다. 대강당은 구도의 열기로 가득했다.

이와테에서도 종문의 박해가 눈보라처럼 거칠게 불어닥쳐, 동지들은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텼다. 참석자 중에는 아오모리현과 경계를 이루는 니노헤에서 <세이교신문> 보급소를 운영하는 안보 요시미쓰라는 청년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초, 종문은 니노헤에 사찰을 세우면서 학회를 더욱 격렬하게 공격했다. 아들이 다른 방면에서 종문 사찰의 주지를 하는 어느 장년부는 동지를 혈뜯고, 뒤에

서 학회를 비판하면서 순수한 학회원을 꺾어 단도(檀徒)가 되도록 부추겼다. 니노헤로 부임한 주지는 이 장년부 간부와 공모해 학회원을 끊임없이 공격했다. 광선유포를 위해 성실히 활동하는 불자(佛子)를, 승복의 권위를 앞세워, 깔보고 괴롭혔다.

새해가 되자, 신이치의 이와테 방문을 노렸다는 듯 몇 사람이 탈회서를 냈다. 안보를 비롯한 학회원들은 날마다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공방전을 펼쳤다.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소중한 회원이 마군(魔軍)의 먹잇감이 되었다.

신문 보급소에서 일하는 배달원 중에서도, 종문 승려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학회를 떠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배달원이 그만두게 되면서, 담당하던 지역을 안보가 직접 배달해야 했다. 안보는 '질 성싶은가!' 하고 자신을 고무했다.

1월 11일, 안보는 현 북쪽의 니노헤에서 현 남쪽의 미즈사와까지 차로 세시간 정도 걸려 이와테현 대표간부회에 달려왔다. 도중에 눈보라가 덮쳤다. '이 눈보라는 광포의 길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타올랐다.

오후 6시, 대표간부회에 모습을 나타낸 신이치가 이렇게 말했다.

"나도 오늘은 사랑하는 이와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장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다. 당신에게 '일일 회장'을 부탁드립니다."

신이치는 어느 교육부 장년부원을 지명하고는, 자신이 단홍장을 그에게 달아주었다.

근행을 마치자 현간부가 이날 1월 11일을 '미즈사와의 날'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기쁨이 넘치는 박수소리로 장내가 떠나갈 듯했다.

간부들이 포부를 발표할 순서가 되자 신이치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역직이나 직함에 상관없이 모두 평등합니다. 동지이고 친구입니다. 그러니 발표자도 딱딱한 말은 그만하고, 원고 없이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다들 멀리서 오느라 피곤할 테니 즐겁게 합시다."

발표자들은 당혹스러웠다. 도중에 횡설수설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성원의 고함소리가 나오고 웃음이 터졌다.

이어서 부인부 합창단의 합창순서가 되었다.

"노래는 어떤 노래가 좋습니까? 신청곡을 받아 불러달라고 합시다."

신이치가 이렇게 제안하자 '황성의 달' '봄이 왔다' 등을 잇따라 외쳤다. 전부 준비한 노래는 아니었지만, 합창단은 당황하지 않고 발랄하게 노래했다.

"그럼 한 곡 더 부탁드립니다!"

"'푸른 산맥'을 부탁드립니다!"

연습한 적이 없는 노래였다. 그러나 이 노래도 멋지게 불렀다. 강당이 떠나갈 듯한 커다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합창단 멤버는 무슨 일이든 마음을 정하고 온 몸으로 부딪친다면 높은 장벽도 넘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대표간부회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신이치가 지도할 차례가 되었다.

신이치는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도 악조건 속에서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의지로 광선유포를 향해 언제나 앞장 서서 나아가는 이와테 동지를 진심으로 찬탄했다. 그리고 "각자의 지역에서 어본존의 공덕을 받고 인간으로서 실력을 길러, 지역에 뿌리내린 '광포의 촌장'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월월(月月) 일일(日日) 강성해지시라."(어서 1190쪽)라는 어서를 배독하고, 광선유포의 착실한 전진과 신심향상을 위해 왕성한 구도심을 불태워 동지와 함께 불도수행에 힘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했다.

"인간은 서로 격려하고 촉발해야 비로소 강해집니다. 격려가 있어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이 필요합니다."

광선유포의 전진을 가로막는 벽이 아무리 두껍고 단단해도, 이체동심(異體同心)의 단결로 신행학(信行學)을 착실히 실천하며 끈기 있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비록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집념을 불태우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광포의 길이야말로 숙명전환(宿命轉換)의 길입니다. 행복과 승리의 대도(大道)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않겠다. 좌절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제목 제일로 나와 함께 나아갑시다!"

결의에 넘치는 박수소리가 크게 울려퍼졌다.

대표간부회가 끝났다. 하지만 신이치의 격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신이치는 동지에게 선사할 격려의 시를 쉬지 않고 썼다. 그런 가운데 “지금, 산리쿠 멤버가 네시간이나 걸려 도착했습니다.”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차로 얼어붙은 눈길을 달려 기타가미고개를 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결국 대표간부회에는 늦고 말았다.

"지금 바로 만납시다!"

“당기원영(當起遠迎) 당여경불(當如經佛)”(법화경 677쪽) — ‘마땅히 일어나 멀리서 맞이하기를, 마땅히 부처를 공경하듯이 할지어다.’ 이다. 법화경 행자를 공경하는 자세야말로 투쟁하는 동지를, 구도의 사람을 맞이하는 창가의 영원한

정신이다.

곧바로 신이치는 산리쿠에서 온 멤버들이 기다리는 1층으로 내려갔다. 동지는 산리쿠방면에서도 종문 승려의 과묵한 처사에 맞서 싸웠다.

"어려움 속에서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눴다. 모두 저마다 "선생님!"이라고 말하고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신이치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눈에는 눈물이 빛났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며 필사적으로 투쟁하셨겠습니까.

‘누가 정의이고, 누가 올바른가.’— 어본존은 모두 아십니다. 대성인 말씀대로 홍교에 힘써온 여러분이 불행해질 리 없습니다. 인생의 대승리자가 되지 못할 리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佛法)은 거짓이 되고 맙니다."

"예! 맞습니다!"

모두 눈동자를 빛내며 몇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구원(久遠)의 사명으로 맺어진 동지입니다. 불법(佛法)의 형제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먼저 21세기를 목표로 밝고 생기발랄하게 함께 전진합시다!"

"예!" 하고 결의가 넘치는 목소리가 울렸다.



한 멤버가 ‘가족들도 신이치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대표 간부회 참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제목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습니까. 부디 안부 잘 전해주시시오. 나는 내일도 이곳에 있을 테니, 가능하면 같이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신이치는 동행한 아오타 스스무 부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일 자유근행회를 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몇번이라도 참석하겠습니다."

멤버가 환성을 올렸다.

"오늘 오기를 참 잘했어!"

눈앞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약환희하며 일어서야 비로소 새로운 변혁의 물결이 일어난다.

신이치는 미즈사와문화회관에 남은 스태프 대표들에게 말을 건넸다. 특히 청소를 담당한 부인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정중히 인사했다.

그리고 나서 서류결재 등의 집무를 시작하자, 2층 로비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로비로 나가자 여자부 합창단 멤버가 모여 있었다.

신이치가 "다들 무슨 일입니까?"라고 물었다.

"예, 선생님을 뵙고 싶어 왔습니다. 대표간부회에는 참석

할 수 없어서…."

단원들은 대표간부회에서 합창할 계획으로 연습에 힘썼다. 그러나 대강당 수용인원 문제로 부인부 합창단만 노래하고, 여자부는 근처 학회원 집에 모여 간부회 성공을 위해 창제했다.

"그렇습니까. 참 아쉽게 되었군요. 내일 자유근행회를 열도록 부탁해 놓았으니, 올 수 있는 분은 오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도 모시고 오세요.

여자부는 창가(創價)의 꽃입니다. 여러분이 있으면 이와테의 미래는 희망으로 빛납니다. 21세기에는 일본 제일, 세계 제일의 이와테 창가학회를 구축해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말고 30년 뒤, 50년 뒤를 목표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신이치는 여자부 합창단을 격려하고, 이튿날 개최할 자유근행회에 대해 아오타 스스무 부회장과 야마나카 아키오 도호쿠장, 그리고 이와테현 간부들과 협의했다. 이미 이와테의 각 조직에는 '12일 오전과 오후에 미즈사와문화회관에서 야마모토 회장을 모시고 자유근행회를 여니,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참석하라.'는 연락이 돌고 있었다.

신이치가 아오타를 비롯한 간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일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회관에 몰릴 테니, 대책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계획을 세웁시다."

계획을 대충 세우면 실수가 생긴다. 성공하려면 구체적이고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신이치가 "내일 자유근행회에는 몇명 정도 오겠습니까?"라고 묻자, 야마나카 도호쿠장이 "수천명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렇습니까. 거의 같은 시각에 회원 여러분이 대거 몰릴 경우, 어떻게 하면 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현관이 혼잡할 것입니다. 또 신발이 바뀌지 않도록 대책도 강구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회관에 왔는데 신발을 잃어버리면 환희도 순식간에 식고 맙니다.

그리고 회관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해당 간부는 이웃에는 물론이고 역에도 찾아가 인사하고 오십시오. 승객이 평소의 몇 배나 많아질 테니, 차표가 매진될 수도 있으니까요."

신이치는 신속하게 지시했다.

"나는 관리인실에서 대기하다가 대강당에 사람이 다 차면 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몇번이고 근행회를 열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실시하는 근행회가 중요합니다. 무사고, 대성

공을 위해 모두 함께 진지하게 창제합시다."

신이치의 진두 지휘로 준비가 진행되었다.

1월 12일 이른 아침, 미즈사와문화회관에는 이미 학회원이 몇 사람이나 와 있었다.

'자유근행회'라는 명칭을 처음 듣는 사람이 많아, 서로 이렇게 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미즈사와문화회관에서 함께 근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분명 아침근행일 테지요. 그렇다면 오전 6시 전에는 회관에 도착하는 편이 좋겠군요."

연락한 사람이 너무 흥분해서 상세한 내용을 빼먹고 전한 듯했다.

바벨수록 신중하고 주의 깊게 대처해야 한다. '하나의 착오'가 큰 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잠시 뒤에 모자, 목도리, 방한복으로 몸을 뽁뽁 싸맨 벗들이 찬바람을 뚫고 흔히작약(欣喜雀躍: 몹시 좋아서 뛰며 기뻐함)하면서 속속 모여왔다. 신이치는 참석자에게 줄 따듯한 음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미즈사와문화회관 개관을 기념하는 자유근행회는 결국 저녁까지 몇 차례에 걸쳐 열렸다. 신이치가 모두 참석해, 함께 근행하고 인사도 했다. 회원들 속으로 들어가 악수를 나누고 요청에 응해 피아노도 연주했다.



신이치는 근행회 때마다 "오랫동안 뵈지 못해 참으로 죄송합니다. 나는 날마다 이와테 여러분의 건강장수, 무사안온을 바라며 진지하게 제목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신심의 올바른 자세를 힘주어 말했다.

"사자왕(師子王)이란, ‘용기’라는 두 글자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본존을 향해 강한 기원을 근본으로 용감하게 전진해 동지를, 지역의 벗을 끝까지 지키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법자(佛法者)입니다."

"신심즉생활입니다. 상식 풍부하게, 담담하게, 평범하더라도 자기다운 복운 넘치는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심의 승리한 모습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신심을, 지금 다시 한번 인생을'이라는 마음으로 유쾌하게 생명력을 불태우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에 영원한 청춘의 길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지역의 기둥'이 되어주십시오!"

또 ‘묘이치니부인 어소식(妙一尼夫人御消息)’의 "비유하면 한 사람에게 일곱 자식이 있는데, 이 일곱 자식 중에 한 자식이 병에 걸렸다. 부모의 마음이 평등하지 않음이 아니지만, 그러나 병든 자식에 있어서는 마음이 즉(卽) 편중함과

같도다"(어서 1252쪽)라는 구절을 배독하고 이렇게 지도했다.

"부처의 자비는 일체중생에게 평등하지만, 그중에서도 불쌍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에서 능률하게 신심에 힘쓰는 여러분을 어본존은 더욱더 가호하고, 반드시 대자대비로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확신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큰 공덕을 받기 바랍니다. 큰 복운에 감싸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신심의 실증을 나타내는 일이 이와테에 대승리의 봄을 알리는 일이 됩니다."

이와테 멤버의 행복을 바라는 신이치의 필사적인 외침에 전 동지의 생명은 불타올랐다. 진심 어린 진지한 외침에 훈은 공명(共鳴)한다.

오전, 오후에 실시한 근행회에서 참석자와 끊임없이 악수를 나누는 탓에 신이치의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다.

관리인실에서 부운 손을 냉찜질하면서, 저녁에 예정된 이와테 현 신춘기념간부회를 준비했다.

하지만 잠시 뒤, 이와테 미래회 제1기 결성식을 시작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중고등부원 열명으로 이루어진 인재육성그룹이다. 신이치는 미래에서 온 사자(使者)를 만나러 가겠다고 바로 관리인실을 나와 멤버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그리고 신춘기념간부회에 참석했다.

근행에 이어 현장, 방면장, 부회장의 인사가 끝나자 신이치가 직접 사회를 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겁게 합시다. 이와테 창가가족의 모임이니,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합시다.

최고간부의 이야기는 이제 실증이 나지 않습니까? 좌담회를 합시다. 누가 나와서 발표해주십시오. 지부장 중에 누구든 대표로 인사해주십시오!"

신이치가 재촉하자 어느 지부장이 포부를 말했다. 이어서 지부부부인부장, 대블록(훗날 지구) 간부, 블록 간부, 대학부 그룹장 등 열 사람 정도가 잇따라 나와 마이크 앞에 섰다. 생기발랄하게 결의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공덕체험을 발표하는 사람도 있었다.

신이치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기도 하고 몸을 앞으로 내밀어 힘차게 박수를 치기도 하면서 "그렇다! 대단하다!"고 외치며 맞장구를 쳤다. 때때로 웃음이 일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참석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녹아들었다.

이윽고 신이치가 지도할 차례가 되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간부라고 해서 훌륭한 사



람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은 제목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며 열심히 절복, 홍교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벼를 격려하러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어본불의 참된 제자입니다. 또 그것은 바로 날마다 광선유포를 위해 땀을 흘리는 여러분입니다."

"경문에 '삼계(三界)가 불안함이 불난 집과 같아서'(법화경 191쪽)라고 씌어 있듯이, 현실사회는 언제나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에 휩싸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하고 잔혹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에도 지지 않는 자신을 구축하고, 자신의 생명속에 있는 궁전을 열어 행복을 실현해야 합니다. 불법은 그러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생이란, 온갖 고뇌와 미혹을 안고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뇌에 절망하고 좌절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본존을 수지한 여러분은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 생사즉열반(生死卽涅槃)의 법리에 따라, 어떠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더라도 감연히 고개를 들고 불사조처럼 자신의 사명을 위해 곳곳이 살아가기 바랍니다.

고뇌하는 벼를 끌어안고 격려하면서 함께 행복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이치는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학회는 인간과 인간이 명랑하게 곳곳이 살아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벼를 격려하고 복돋아, 얼어붙은 마음의 대지에 행복의 꽃을 피우는 인간의 스크럼입니다. 이 존귀한 신심의 세계, 화합의 세계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자타 함께 행복을 위해, 사회를 위해!"

모두가 새롭게 결의했다. 자신의 사명을 자각했다. 한풍(寒風) 속에서 가슴을 활짝 펴고, 생기발랄하게 지역광포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실시한 행사에는 구지, 미야코, 가마이시, 오후나토, 리쿠젠타카타 등 산리쿠에서도 동지가 많이 참석했다.

그중에 가마이시에서 달려온 스물여섯살의 남자부 지구리더 모토후지 유지가 있었다. 모토후지는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입회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건축회사에서 일하며 야간고등학교에 다녔다. 취직하고 10년이 넘었지만,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데다 육체노동으로 허리도 좋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암담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미즈사와문화회관에서 열린 근행회에 참석하고 자신의 사명을 자각했다. 마음을 뒤덮은 구름이 걷혔다.

사명에 불타오를 때, 자신의 흥중에 태양이 빛난다.

모토 후지는 가마이시의, 그리고 산리쿠의 광선유포를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 그것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작은 일부터 행동에 옮기기로 했다.

'지역의 동지를 위해 <세이교신문>을 배달하자!'

모토 후지는 일과 학회활동에 의욕적으로 도전했다. 이윽고 결혼도 했다. 다니던 건축회사가 도산하고, 자신은 물론 장인·장모도 입원하고 수술하는 등의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지만, 언제나 창제를 근본으로 하나하나 이겨냈다. 공기압(空氣壓) 기기(器機)로 유명한 회사에 도 취업했다. 지역에 공헌하자며 의용소방대 활동에도 참여했다. 모토 후지는 아내인 후쿠요와 함께 서로 자주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학회원으로서 지역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감시다!"

후쿠요도 미즈사와문화회관에서 실시된 근행회에 참석해,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격려를 받았다.

모토 후지는 이와테가 낳은 시인이자 동화작가인 미야자와 겐지를 좋아했다. 그 작품 중에서도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시에 반했다.

"동쪽에 아픈 아이 있으면 / 가서 돌봐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 있으면 / 가서 벗단 지어..."

‘비바람에도, 눈에도, 여름의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과 강한 신념을 가지고 담담하고도 검소하게 살면서, 고뇌하는 사람들과 동고(同苦)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헌신한다.’— 그 마음에 공감했다. 자신도 그렇게 살겠노라 마음을 정하고, 오로지 산리쿠의 광선유포를 위해 달렸다. 지부장도 알게 되었다. '지역의 기둥이 되어라'라는 신이치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또 "그 지방의 불법은 귀하에게 맡기겠소"(어서 1467쪽)라는 어서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맹렬히 달리고 또 달렸다.

—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다. 대지진과 엄청난 해일이 산리쿠를 덮쳤다. 모토후지가 사는 가마이시도 대부분이 지역이 초토화되었다. 아파트 4층까지 해일이 밀어닥쳤다.

모토후지는 이 고난의 거친 파도에 몸부림치면서도 계속 도전했다. 신심이 있는 한, 빛은 있다.

대지진과 대규모 지진해일이 발생한 2011년 당시, 학회의 현장(縣長)으로서 모토후지 유지가 맡은 오쓰치, 가마이시, 오후나토, 리쿠젠타카타 등의 지역은 피해가 심각했다.

그날 모토후지는 내륙 쪽에서 일하고 있었다. 가마이시에 있는 집에는 눈이 불편한 장모와 아내, 딸 그리고 젓먹이 손자가 있었다. 휴대전화도 불통이 되어, 가족과 동지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 어쩔 줄 몰랐다.

일단 집으로 가기로 했다. 교통이 통제되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에 겨우 집에 도착했다. 집 앞에서 몇미터 떨어진 곳까지 해일이 밀어닥쳤지만 집도, 가족도 모두 무사했다. 어본존에게 감사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안도감에 빠질 틈도 없이 총현부인부장인 아내 후쿠요와 함께 회원의 안부를 확인하러 집을 나섰다.

거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일대가 쓰레기 더미에 뒤덮이고 폐허가 되어, 시가지로 가는 길도 사라졌다. 그러나 어쨌게든 동지를 만나야 했다. 뒷산의 계단을 올라 덩불이 무성한 좁은 산길을 따라 걸었다. 전날부터 내린 눈에 다리가 푹푹 빠졌다. 쓰러진 나무와 무너져 내린 바위를 넘어 가파른 비탈을 내려가자 이번에는 건물 잔해더미가 앞길을 막았다. 그 잔해더미를 밟고 넘어 두시간 정도 나아가자 시(市) 대책본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각 대피소에 수용된 사람들의 명부를 보고 학회원의 이름을 확인해 대피소로 찾아갔다. 잔해로 뒤덮인 길 없는 길을 필사적으로 걸어, 이날 대피소 다섯곳을 찾아갔다. 학회원 몇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달랑 옷만 걸친 채 대피소에 도착해 하룻밤을 보낸 사람들은 초췌하기 그지없었다.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에 모토후지는 할 말을 잃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라면서 그저 손을 붙잡고 함께 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도 모두 기뻐해주었다. 동지의 눈동자에 차츰 빛이 되살아났다.

어쨌든 만나야 마음이 전해지고, 마음이 이어진다. 행동보다 뛰어난 웅변은 없다

자신도 재해를 입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바쁘게 일하는 학회원도 있었다. 신앙의 힘을, 빛나는 학회의 혼을 보는 듯했다.

모토후지는 대피소를 돌면서 많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1주일 전까지만 해도 함께 활동하러 다닌 선배도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녀를 잃은 부부, 부모를 잃은 아이, 남편을 잃은 아내, 아내를 잃은 남편… 모토후지는 사람들이 처한 괴로운 현실에 자기 가족이 무사하다는 사실이 죄스럽기까지 했다. 그리고 부지한 이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 쓰자고 맹세했다. 대피소에서 나온 모토후지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했다. 구호물자를 운반하는 등,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했다.

많은 동지가 해일로 집을 잃었다. 그 속에서 학회원은 대피소를 청소하고 밥을 지어 배급하는 등,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했다. 타인의 행복을 바라며 행동하는 속에 자신의 행복도 있다는 불법(佛法)의 공생철학(共生哲學)이 맥

동했다.

모토후지뿐 아니라, 1979년 1월 미즈사와문화회관에서 야마모토 신이치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이런 동지들이 적지 않았다.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자 창가학회는 학회본부를 비롯해 각 방면과 현에 곧바로 ‘재해대책본부’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규모로 구호와 지원활동을 개시했다.

미야기현 센다이시(市) 미야기노구(區)에 있는 도호쿠문화회관을 비롯해, 재해지역에 있는 회관은 모두 대피소가 되어 이재민을 수용했다. 모토후지가 사는 가마이시시(市)의 가마이시문화회관에도 인근 주민 등 40여명이 대피했다.

신이치는 대지진과 대규모 해일이 일어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재해지역의 벗에게 전언을 보냈다.

“참으로 소중한 여러분에게 불천(佛天)의 가호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아내와 함께 강성하게 제목을 보내고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묘(妙)란 소생의 의(義)이고’ (어서 947쪽)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불굴의 신력(信力)·행력(行力)을 불러일으켜, 위대한 불력(佛力)·법력(法力)을 용솟음치게 하면서 이 고난을 반드시 이겨냅시다.”

<세이코신문> 3월 16일자에는 재해지역 동지에게 보내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메시지가 실렸다. 신이치는 메시지에서 이재민을 위로하고 구호와 지원활동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는 회원에게 고마움을 전한 뒤, 혼을 쏟아붓는 듯한 심정으로 ‘이 큰 시련을 반드시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어서에는, 재해가 일어나도 ‘마음을 파괴할 수 없는데’(어서 65쪽)라고 분명히 써어 있습니다. ‘마음의 재(財)’만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영원히 행복해지기 위한 시련입니다. 어떤 일이든 반드시 변독위약(變毒爲藥)할 수 있는 것이 이 불법이고 신심입니다. (중략) 결코 지지 마라! 용기를 내라! 희망을 가져라!”

학회본부에서도 최고간부들이 재해지역으로 달려가 벼슬 격려했다. 또 복구지원을 위해 젊은 직원들을 파견했다.

모두 신이치의 뜻을 받아 온 힘을 다해 헌신했다.

이와테뿐 아니라 미야기, 후쿠시마 등 재해지역에서 분투하는 학회원 그리고 한신·아와대지진을 이겨낸 효고 등 간사이를 비롯한 전국 동지들의 지원은 인간의 강한 유대를 증명하는 영원불멸(永遠不滅)의 빛을 발할 것이다.

도호쿠 청년들은 각지에서 ‘자전거 구급대’ ‘청소작업반’ ‘청소봉사단’ 등을 결성해 재해를 입은 고령자들을 위해 청



소나 정리, 그리고 물자 배달 등을 자진해서 도맡았다. 요리사나 이발사, 미용사 등 기술을 살려 봉사활동을 한 장년 부원과 부인부원도 있었다. 모두 자신도 재해자였다. 해일이 덮쳐 잔해로 뒤덮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서는 어느 남자부원이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싶다. 살아갈 용기를 주고 싶다.’고 결의했다. 그리고 ‘힘내자! 이시노마키’라고 쓴 가로 10.8미터, 폭 1.8미터짜리 대형 간판을 만들었다. 이 남자부원도 집이 떠나려가, 눈이 내리는 속에 겨우 소나무에 매달려 하룻밤을 지새우고 목숨을 건진 청년이었다. 이 간판은 이윽고, 도호쿠 부흥의 상징이 되었다.

‘질 성싶은가!’— 이 기상이 학회혼(學會魂)이다! 고난의 폭풍우가 맹렬하면 맹렬할수록 용감하게, 인내 강하게 도전하며 맞서 싸우는 사람이 창가(創價)의 사자(師子)이다! 피해가 컸던 이와테현 오후나토시(市)의 현립오후나토 병원에 전공의가 한 사람 있었다. 스물일곱살의 시오타 다케오였다. 지진이 일어난 날이 임상수련과정 2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다. 시오타는 큰 지진 직후에 고지대에 있는 병원의 창문으로 해일이 시가지를 집어삼키는 광경을 목격했다.

환자가 잇따라 실려왔다. 중상을 입어 목숨이 위태로운 사

람도 있었다. 20일 동안 병원에서 먹고 자며 진찰과 치료에 매진했다.

— 시오타가 열일곱살 때 남동생이 태어났다. 어머니는 출산한 뒤에도 날마다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동생이 ‘선천성 거대결장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대장과 항문에 신경세포가 없어 이완작용을 못하는 병이었다. 동생은 결국 1년 10개월 만에 생을 마감했다. 처음으로 병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끌어안은 동생의 몸이 아직 따뜻했다. 생명의 무상함이 어린 마음에 스며들었다.

시오타는 중고등학교를 소카학원에서 공부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기념촬영회 때, 창립자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반드시 의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사립대학 의학부에 진학했다. 하지만 2년 뒤, 아버지가 경영하는 토목회사가 도산하고 말았다. 채무자가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와 빚독촉을 했다. 더 이상 학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기원했다.

“반드시 의사가 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이와테현에 의사를 양성하는 장학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래 이와테현에 있는 공립병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지원받은 학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였다. 시오타는 이 장학금 덕분에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졸업한 뒤, 오후나토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해일을 겪었다. 필사적으로 진료했다. 피로가 한계에 달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상황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날을 위해 내가 있다! 지금 힘내지 않고 언제 힘을 낸단 말인가!’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때가 있다. 그때에 최고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

시오타의 분투는 환자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 뒤로도 시오타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와테현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의료에 종사하게 된다.

이와테현 라쿠젠타카타시(市)에서 양식업을 하는 무라카와 요시히코는 대출을 받아 최신설비를 갖춘 어선을 구입했지만 해일로 잃었다. 항구도 모두 파괴되었다. 무라카와는 실의와 낙담에 빠졌지만, 지구부장으로서 동지의 안부를 확인하러 뛰어다니며 마을의 복구작업에도 힘썼다.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거리를 보자 절망이 엄습해왔다.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창제하고, 학회의 지도를 정신없이 읽었다.

무라카와에게는 지진이 일어난 날 이른 아침에 아내 후미와 함께 수확한 미역 1톤이 있었다. 산리쿠미역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보통 대보다 몇배나 높은 가격이 붙었고, 이 돈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라카와는 그 미역을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사람은 먹으면 힘이 나기 마련이다. 지금은 무엇보다 사람들이 힘을 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렸다. 기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용기가 솟았다. ‘다시 미역을 기르자.’고 생각했다.

<세이교신문>에서 무라카와가 지구부장을 맡고 있는 히로카 지구를 재해지역 특집으로 소개하자, 전국에서 동지들이 격려의 편지를 수백통이나 보내왔다. ‘한신·아와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에서 지구의 이름이 같은 ‘히로타태양지구’가 회원들의 응원문구를 모아 보내왔다.

게다가 이 히로타태양지구의 지구부장은 무라카와와 성씨(姓氏)도 같을 뿐 아니라 똑같이 지진으로 집도 붕괴되었다. 그리고 리쿠젠타카타에 있는 무라카와의 집에 찾아와 자신의 체험을 말해주었다. “형제지구로서 함께 힘냅시다. — 이 말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무라카와의 마음을 울렸다.

‘고투하는 벼를 결코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자!’

이것이 불법형제(佛法兄弟)의 연대에 깃든 마음이다.

해일로 모든 것을 잃고 어업을 단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무라카와는 학회원인 자신이 마을의 부흥에 앞장 서자고 결심하고 공동으로 양식작업을 추진해, 지진이 일어난 다다음해 1월에 새 어선을 구입했다. 무라카와는 지역부흥의 추진력이 되었다.

창가동지(創價同志)의 삶에는 “남을 위해 불을 밝히면 내 앞이 밝아지는 것과 같다”(어서 1598쪽)는 정신이 맥동한다. 이것이야말로 지역을 건설하는 힘이 된다.

전국 각지에서 복구를 지원하려고 달려온 본부직원 중에 규슈에서 온 청년이 있었다. 재해지역에서 만난 어느 부인이 그에게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당신은 이 참상을 똑똑히 봐 두십시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부흥을 이루어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지켜보았다가 역사의 증언자가 되어주십시오.”

스스로 역사를 창출하려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고경(苦境)을 무대로, 인생의 장대한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자, 42개 회관에 이재민 약 5000명을 받아들였다. 학회가 재해대책본부를 마련하고 지원한

물자는 음료, 식료품, 의약품, 의류, 침구 등 약 64만 2000점에 달했다. 동원한 자원봉사자는 2만 500명이 넘었다.

니치렌 대성인은 1257년 8월에 일어난 대지진, 그리고 폭풍과 대기근·대역병 등 잇따르는 참화에 마음 아파하며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을 집필하시고, 1260년 7월에는 사실상의 최고권력자인 호조 도키요리에게 ‘입정안국론’을 제출해 간언하셨다.

‘안국론어감유래(安國論御勘由來)’에는 이렇게 씌어 있다.

“다만 오로지 나라를 위하고 법을 위하며 사람들을 위해서이지 자신을 위해 이를 말함이 아니로다”(어서 35쪽)

대성인은 불행한 현실세상을 눈앞에서 보고, 그 고뇌를 해결하고자 홀로 일어서셨다.

입정안국(立正安國: 정<正>을 세워 나라를 평온케 한다)의 ‘입정’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속에 정법(正法)이라는 생명존엄의 법리를 세우는 일이다. ‘안국’이란, 입정의 귀결로서 사회번영과 평화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불법자(佛法者)의 종교적 사명인 ‘입정’은 ‘안국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사명의 성취에 따라 완결된다.

입정 없는 안국은 미궁에 빠져 헛바퀴를 돌 뿐이고, 안국 없는 입정은 종교를 위한 종교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우

리는 입정안국의 대도(大道)를 있는 힘껏 돌진해야 한다.  
도호쿠 동지는 입정안국의 법리에 비추어 “결국은 승부를 결정해 버리는 이외는 이 재난이 그치기 어려우리라”(어서 988쪽)라는 성훈을 떠올리며 광선유포를 향해 새롭게 결의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광포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1979년 1월 13일 오전, 미즈사와문화회관 뜰에서 신이치는 돌아가신 동지를 현창하는 기념식수를 했다. 또 회관에 온 아이들과 씨름을 하고 모인 사람들과 간담하는 등 끝임없이 격려했다.

그리고 “신세 많이 졌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아오모리로 갔다.

차를 타고 기타카미역에 가서 오후 2시 22분에 출발하는 도호쿠본선 특급열차‘하쓰키리 3호’를 탔다.

출발하고 30분쯤 지나 이와테이오카역을 지날 때, 열명 가량의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열심히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신이치는 옆자리에 앉은 이오타 스스무 부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학회원들이 나와 있구나. 송구스럽게도 추운 날씨에 배웅을 나와주셨다. 회원들의 진심이 가슴에 와닿는다. 감기에 걸리지 말아야 할 텐데…。 가능하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게.

그런데 이번에 미즈사와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군.”

“예, 올해는 신기하게도 예년보다 포근해 아직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지는 않았습시다.”

“근행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이 오지 않아 다행이네.

만일 눈이 와 쌓였으면, 나는 눈 속을 걸으며 직접 격려하려 다닐 생각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쪽지방에서 광선유포의 길을 개척하는 동지의 노고를 진정으로 실감할 수 없을 테니 말이네.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이지만, 기획하고 안을 세우고 지도하는 간부가 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실태를 모르면 탁상공론이 되고 만다. 결국 현실과 맞지 않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관료주의입니다.

그러므로 학회의 리더는 끊임없이 제일선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현실 속에서 고투하고 노력하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호령이나 명령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행동과



대화로 사람들을 계발해야 한다. 그 사람이 광선유포의 지도자이다.”

신이치 일행이 탄 열차는 모리오카를 지나 드디어 아오모리현에 접어들었고, 하치노헤, 미사와를 거쳐 긴 터널로 들어갔다.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때, 일대의 설경에 탄성이 절로 나왔다.

차창 밖으로 가랑눈이 휘날렸다.

신이치는 아오타 스스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오모리의 겨울은 눈과 사투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순백(純白)의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거친 풍토에서 고투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내리는 은상(恩賞)이 아닌가.”

그리고 곁에 있는 동행한 멤버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두 함께 시를 지어보자. 단가도 좋고, 단형시도 좋다. 자신이 풍경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가 중요하네. 시를 읊으려면 ‘발견’이 필요하다. 결국 그럼으로써 통찰력을 연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모두 허둥대며 황급히 시와 단가를 지었다.

그리고 나서 30~40분 뒤에 아오모리역에 도착해, 차를 타고 아오모리시에 있는 아오모리문화회관으로 갔다.

회관에 도착한 때는 오후 6시 전이었다. 고등부원이 눈으로 만든 높이 3미터쯤 되는 대형 백조가 회관 뜰에서 일행

을 맞이했다. 눈은 그쳤지만 한기가 살을 에는 듯했다. 신이치는 차에서 내리자 맨 먼저 회관 앞에 있는 조립식 건물로 갔다. 그곳에 스태프인 듯한 청년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문을 열었다.

“수고하십니다!”

신이치가 인사하자 그곳에 있던 청년들이 놀란 표정으로 신이치를 바라보았다. 창가반, 백련그룹 등의 스태프가 작업실이나 대기실로 쓰는 곳이었다.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진정한 후계자 여러분을 가장 먼저 만나러 왔습니다. 날씨가 추우니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신이치는 음지에서 노고하며 분투하는 사람을 최대한으로 찬탄하고 격려하자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아니, 거기에 집념을 불태웠다고 해도 좋다.

신이치는 자신의 행동으로 창가(創價)의 인간주의 마음을 전하고 남기려고 필사적이었다.

신이치는 7년반 만에 아오모리시를 방문했다. 아오모리문화회관은 지난해 12월에 완공한 새 회관이었다. 신이치는 로비에 들어서자 가토리 신스케 현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멋진 회관을 완공했군요. 자, 이곳에서 역사에 남을 아오



모리의 새로운 막을 엿시다!”

그리고 쉴 틈도 없이, 2층 대강당에서 초창기부터 투쟁해 온 아오모리현의 공로자와 아키타현 대표 약 150명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신이치가 도호쿠 사투리로 인사하자 장내가 들끓었다.

“모두 고생하며 애쓰셨으니, 오늘은 딱딱한 이야기는 빼고 노래라도 부르며 즐겁게 합시다.

자, 어느 분이든 나와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단, 학회가를 제외한 노래로 하겠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 옛 가요를 불렀다. 모두 노래에 맞춰 박수를 쳤다. 분위기는 단숨에 부드러워졌다.

사람들이 차례차례 나와 ‘하치노헤코우타’ ‘구로다부시’를 불렀다. 아오모리지부 초대 지부장인 가네키 다다시가 어느 장년부원과 함께 ‘사도오케사’를 불렀다.

“잘 부르는군요! 앙코르, 앙코르.”

신이치의 말에 가네키는 차렷자세로 꼳꼳이 서서는 “그럼 어린 시절로 돌아가 ‘비둘기’를 부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양팔을 벌려 날갯짓을 하듯이 움직이며 노래하기 시작했다.

세무사인 가네키는 근엄하고 성실한 데다 농담도 하지 않

는 성품이었으므로, 모두들 크게 놀랐다.

그리고 도호쿠지방에 전해지는 숫자풀이 노래를 빗자루를 들고 춤추며 불렀다.

“간카라칸토 칸마이다 한마리...”

다들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으며 함께 불렀다.

신이치는 야마나카 아키오 도호쿠장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저 눈을 보십시오. 정말 즐거운 표정이지 않습니까! 이 얼굴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즐겁게 자유롭게 투쟁하면 모두 생기발랄하게 힘을 냅니다. 그렇게 하면 도호쿠가 전국 최고가 됩니다. 리더는 사람들의 기쁨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이치는 끝으로 모두 함께 근행하고 아오모리현, 아키타현의 광선유포와 번영을 깊이 기원했다.

간담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갔다. 눈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밝게 빛났다.

신이치는 간담회 뒤에도 도호쿠의 방면간부를 비롯해 현의 최고간부와 함께 향후 활동을 협의했다.

신이치는 리더의 자세를 말했다.

“도호쿠에는 도쿄에 본사가 있고 아오모리나 아키타 등, 각 현에 지사나 지점이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지사장이나 지점장은 본사에서 파견된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중에서 뛰어난 실적을 올리는 리더는 공통적으로 ‘이 땅에 뼈를 묻자. 이 고장에 공헌하자.’고 굳게 결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눈과 싸워야 하고, 혹독한 추위 때문에 개중에는 본사에 빨리 돌아가기만을 바라며 ‘일시적으로 실적만 좋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몇년만 지나면 이동할 테니. 실패만 하지 말자.’며 한발 물러서서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밑에서 일하는 사원이나 주위 사람들은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훤히 압니다. 적당히 숨기려고 해도, 그 마음가짐이 평소의 행동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랫사람에게는 권위를 부리며 거만하게 굴고, 윗사람에게는 아첨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나머지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본사에 듣기 좋은 일을 보고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은 편한 일만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 절대 흠탕물을 뒤집어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떠납니다. 결국 이렇게 몸을 사리는 리더의 자세가 파탄의 원인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회원을 위해 힘쓰는

학회간부는 ‘진정한 리더란 이런 모습이다.’라고, 사회에 올바른 리더상(像)을 나타낼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리더혁명을 추진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기 바랍니다.”

신이치는 아오타를 비롯해 동행한 멤버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아오모리로 오는 열차 안에서 눈풍경을 보고 시를 짓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모두 순간 뜨끔했다. 시를 써도 첫 단락만 겨우 쓰고 못 썼거나 몇수 지었지만 퇴고할 여유가 없어 발표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곧바로 깨끗이 옮겨 적어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아오타가 대답했다.

20분쯤 지나자 모두 시를 들고 왔다.

신이치가 바로 훑어보았다.

“잘 쓰지 않았는가. <세이쿄신문>에 실을 수 있을지 상의 해봐야겠군.”

모두 ‘일이 커져버렸다.’고 생각했다.

아오타가 쓴 시는 ‘일양래춘(一陽來春)’이라는 제목이었다.

“차창 밖에 펼쳐진

황량한 은세계

흑독한 눈보라를 가르며

광포를 위해 달리는

동지의 모습 그림구나”

또 야마나카 도호쿠장은 열차에서 본 설경뿐 아니라 아오  
모리문화회관에 도착하고 나서 느낀 심정을 읊었다.

“아오모리는 / 사람 좋고 바다 좋고 / 눈보라 좋구나

광포의 아성(牙城)에 / 뜬 밝은 달도 좋구나”

그리고 동행한 젊은 본부 직원은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  
는 자신의 앞길을 거친 눈보라에 빗대어 “내 인생은 정해  
졌노라 / 나는 전진하리 / 나는 가리라” 라고 시를 지었다.  
자신이 화려한 무대에 서서 주목받으려고 하지 않고 음지  
에서 사명을 완수하려고 묵묵히 노력하는 청년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끝맺었다.

“북국의 눈보라여 /

나를 단련하라 / 엄부(嚴父)처럼”

신이치는 모든 시에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기개를 느꼈  
다. 마음 든든했다.

신이치는 동행한 멤버들이 시를 지으면서, 눈보라와 맞서  
싸우며 살아가는 동지의 고투를 자신의 고(苦)로 삼겠다고  
단단히 결의하기를 바랐다.



1월 14일 일요일에는 폭설이 쏟아졌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아오모리문화회관에서 현간부를 비롯해 현지 멤버와 함께 아침근행을 했다.

근행이 끝나고 잠시 간담을 나눴다. 참석한 어느 부인부원이 “선생님!” 하고 외치며 일어섰다.

“이곳 아오모리문화회관이 있는 오노지부의 지부부인부장 나카자와 미요코라고 합니다. 저희 지부는 선생님을 모시려고 일체를 승리해냈습니다. 저희 지부에는 인재가 많습니다. 꼭 지부의 회원들을 만나주십시오.”

신이치는 그 자리에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1시 반에 아오모리·아키타 합동대표간부회가 있고, 그 뒤로 아키타현 대표와 간담회, 히로사키대학회 멤버와 기념촬영이 있으니 해질녘이면 가능합니다. 회원들의 시간이 괜찮겠습니까? 회관에 올 수 있는 분은 모두 오십시오.”

오노지부 이외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희망자는 참석할 수 있게 했다.

신이치는 이날도 아침부터 바쁜 하루였다. 점심에는 결성된 아오모리미래회 제1기생을 격려했다. 이어서 신이치를 만나러 찾아온 시모키타 멤버 몇 사람과 간담했다.

— 10년 전 봄이었다. 시모키타 반도의 오미나토에서 실시

된 중등부원회에 모인 멤버 30~40명의 사진과 그 대표가 쓴 결의문이 신이치에게 우편으로 도착했다. 신이치는 혼슈(本州) 최북단인 시모키타에서 중등부원들이 큰 뜻에 불타 즐겁게 신심에 힘쓰는 모습이 무척 기뻐다. 비매품인 자신의 저서 <젊은 날의 일기> 제2권에 “시모키타 중등부원의 성장과 영광을, 나는 늘 기원하겠습니다. 이 사진 속 벗들과 10년 뒤에 반드시 만납시다.”라고 써서 바로 보냈다. 그리고 이듬해 11월에는 눈보라와 맞서 싸우며 살아가는 젊은 벗을 생각해, 저서 《나의 인생관》에 “시모키타의 / 우리 중등부 / 폭풍우처럼 나아가라”라고 써서 보냈다. 그 대표 청년들과 당시 중등부 담당자인 부인부원이 찾아왔다.

신이치는 그때 중등부원이던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모두 10년 뒤를 목표로 결의를 세우고 여러 고난에 도전하면서 정진(精進)해왔다.

“잘 왔습니다! 모두들 반드시 성장해서 모이자고 어본존께 맹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 맹세를 잊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어본존께 맹세하고 약속한 일을 어기면 안 됩니다. 결의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결의를 완수하는 일이 존귀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승리를 결정짓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멤버들은 때때로 모여 그 맹세를 서로 확인하고 절차탁마했다. 이날 신이치를 찾아온 청년 중에 기모리 마사시가 있었다. 소카대학교를 졸업한 기모리는 4월부터 도쿄에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게 되었다.

집이 가난한 기모리는 도저히 대학에 갈 형편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객지에 돈을 벌러 나갔고, 어머니는 목재소에서 일하며 자녀 넷을 키웠다. 기모리도 중학교 시절부터 우유배달과 신문배달을 했다.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눈보라를 맞으며 우유를 배달하다 보면 손가락에 감각이 없었다.

기모리는 신이치의 격려를 받은 뒤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가 되어 기대에 부응하자’고 굳게 마음을 정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소카대학교가 개교하자, ‘야마모토 선생님이 창립하신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건 이미 아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마음을 정하고 부모님에게 간곡히 부탁해 허락을 받았다. 열심히 공부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에 소카대학교에 입학했다. 시모키타 지방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소카대생이었다.

도쿄에서 일하는 형네 집에서 신세를 졌다. 토목공사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생활을 보냈다. 기모리는 ‘신이

치 슬하에 모이는 10년 뒤'를 목표로, 이를 악물고 자신과 계속 맞서 싸우며 투쟁했다.

승리자는 자신을 이겨내는 인내의 사람이다. 자신이 맹세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

신이치는 시모키타의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진정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게다가 10년 뒤, 아니 20년 뒤, 30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가 승부입니다. 오늘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부 잘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모두 내 제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날 모인 청년들은 자신들을 ‘시모키타회’라고 이름을 짓고, 그 뒤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여 서로 격려했다.

또 멤버들의 중심자인 기모리는 소카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고향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강해졌다. 그래서 결국 고향에서 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내렸다. 아오모리현 교원채용시험에 합격해 시모키타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이윽고 교장이 되어 지역에 크게 공헌하는 한편, 학회에서도 현간부로서 활약하게 된다.

멤버는 각자 신이치와의 맹세를 가슴에 새기고, 각지에서 인생승리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이 모든 일은 사진 한장에서 시작되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모두 함께 맹세를 담아 사진을 찍어 자주적으로 신이치에게 보냈다. 격려받으려고 기대하며 한 일이 결코 아니다.

물론, 신이치 자신은 날마다 모든 회원의 진심에 보답하고자 필사적으로 분투했다. 하지만 설령 신이치에게 아무런 답장도 격려도 받지 못했다고 해도, 멤버들은 사진을 보낸 것으로 인생의 스승으로 정한 신이치와 분명 마음을 이어갔을 것이다. 멤버들은 이미 사진을 보낸 시점부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신이치와 함께 승리의 드넓은 바다로 출범하고 있었다.

사제(師弟)는 물리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 속에 스승을 안고, 그 스승에게 맹세하고, 그 맹세를 이루려는 필사의 정진(精進)과 투쟁 속에 있다. 거기에 인생의 개화(開花)도 있다.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하는 꽃과 열매는, 땅속에 숨어 있는 건전한 뿌리의 힘입니다.” — 이 말은 아오모리 출신의 교육자 하니 모로코의 깊은 통찰이다.

아오모리·아키타 합동대표간부회가 1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아오모리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빨개진 볼을 하고 기쁜 표정으로 모여왔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곳에서도 자진해서 사회를 보았다.

아오모리현장인 가토리 신스케가 인사를 하기 전에 신이치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이와테현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 등단하는 간부는 원고를 보지 말고 발표하도록 합시다. 그저 원고를 읽기만 한다면 정치가가 상투적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 식상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커다란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이치는 평소의 노고를 날려버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듯한, 즐겁고 유쾌한 인간미 넘치는 회합을 하고 싶었다.

아오모리 현장인 가토리 신스케도, 아키타현장인 센도 야스하루도 오늘을 맞이한 기쁨을 원고 없이 말하고, 향토 건설을 결의했다. 그 소박한 표현이 참석자의 마음을 울렸다.

이어서 아오타 스스무 부회장이 ‘아오모리현에 지역본부제도가 마련되어 아오모리, 하치노헤, 히로사키 이렇게 세개 지역본부로 출발한다.’고 발표하고 인사를 소개했다. 한편 아키타현은 아키타권에 새로운 권장이 탄생한 일 등을 전했다.

대표들의 포부발표 차례가 되었다. 신이치는 “정해진 사람



이 발표하면 재미가 없으니, 그 옆에 있는 신임간부가 발표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지명받은 사람들은 당황스러웠다. 포부를 말해야 하는데 “큰 사명을 받고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자, 폭소가 터졌다.

물론 형식에 따르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형식에만 의존하면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제대로 고민도 하지 않게 되고 메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한다.

광선유포의 운동을 활기차게 추진하려면 하루하루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신이치는, 형식에 안주해 자칫 개선하려는 노력을 잃어버리는 타성의 마음을 없애주고 싶었다. 창가(創價)란 ‘끊임없이 가치를 창조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이날 ‘신심’과 ‘실천’의 관계를 말했다.

“‘신(信)’과 ‘행(行)’을 모두 갖춰야 올바른 불도수행입니다. ‘신’은, 어본존을 끝까지 믿는 것을 말합니다. ‘행’은, 스스로 창제에 힘쓰고 더불어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불법(佛法)을 알리는 절복(折伏)과 홍교(弘敎)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학회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어본존을 신수(信受)해도 신심의 실천, 다시 말해 구체적인 수행을 소홀히 하면 진정한 신심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오모리에서 도쿄에 가려고 해도, 그저 생각만 한다면 갈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야 비로소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애써 행동으로 옮겨 출발해도, 도중에 멈추면 도쿄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심도 관념적이거나 중도반단(中途半端)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공덕의 체험을 쌓지 못하고, 강하게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연에 분동(紛動)되어 퇴전할지도 모릅니다. 이와는 반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유사시에 강합니다.

그 실천은 대성인이 ‘행학은 신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로다’(어서 1361쪽)라고 말씀하셨듯이 ‘행’이나 ‘학’, 다시 말해 교학연찬도 어본존에 대한 강한 ‘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신’ 없는 실천은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형식적이 되고, 타성에 젖어 차츰 환희도 사라지고 맙니다.

어쨌든, 순수하고 강한 신심은 자연스레 과감하고 끈질긴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나도 행하고 남도 교화(敎化)하시라’(어서 1361쪽)라는 성훈대로 자행화타(自行化他)에 걸친 실천을 전개해, 이 도호쿠 천지에서 새로운 광포의 빛을 발하기 바랍니다.”

걸핏하면 눈보라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도호쿠 동지는 눈보라 속에서도 상쾌하게 가슴을 활짝 펴고 광선유포를 위해 곳곳이 투쟁했다. 그 끈질긴 실천을 관철한다면 사랑하는 ‘도호쿠’에 반드시 눈부신 햇살이 가득한 청신(淸新)한 봄이 올 것이다.

신이치는 아오모리·아키타 합동대표간부회에 이어 아키타현 대표와 간담을 나누고, 히로사키대학회 멤버와 기념촬영을 했다. 그리고 아오모리문화회관이 있는 오노지부의 격려회에 참석했다. 격려회에는 회관 주변에 사는 학회원도 포함해 약 800명이 모였다.

가족과 함께 온 참석자도 많아, 화기애애한 창가가족의 모임이 되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회관을 지키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치가 이렇게 말하고 강당에 들어서자, 지부장인 나카자와 쇼타로와 지부부인부장이자 지부장의 부인인 미요코가 함께 입을 모아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두 사람은 7년 동안 오노지부의 지부장·지부부인부장을 맡았다. ‘일본에서 최고로 밝고 공덕 넘치는 지부’를 목표로 지부의 멤버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투병 중인 사람, 사업이 부진한 장년, 남편이 입회하기를 바라는 부인 등 각자가 안은 고민을 자기 고민처럼

필사적으로 기원했다. ‘집에 찾아가면 지부장과 지부부인 부장은 늘 창제하고 있다.’며 회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자라났다.

나카자와는 어느 장년부원이 재기할 수 있도록 여섯달 동안 집에 꾸준히 찾아가 격려하기도 했다. 미요코도 가정방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함께 고민한다.’— 이것이 학회의 세계이다.

지부의 멤버도 부부의 개성과 성격을 잘 이해하고 서로 힘을 모아 도우면서 지부건설에 힘썼다.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리더의 기원과 행동, 그리고 멤버들의 단결이 모범적인 지부를 만들어냈다.

신이치는 모인 벗들을 위해 피아노를 연주하고 함께 창제한 뒤, 대화를 나눴다.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어본존에게 호소하면서 창제하면 됩니다.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원하면 됩니다. 어본존은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본존과 함께 광선유포의 사명을 위해 살겠다고 굳게 결의해야 합니다.” 이날 저녁, 신이치는 방면·현간부와 간담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오노지부의 나카자와 지부장 부부도 그렇지만 아오모리의 간부는 부부가 함께 지부장·지부부인부장으로서 활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역광포 추진에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현간부가 이렇게 대답했다.

“아오모리지부의 가네키 다다시 초대 지부장 시절부터입니다. 예를 들면 부인만 입회를 결심했을 경우 ‘남편도 함께 신심하는 편이 좋다. 내가 가서 말해보겠다.’며 몇번이고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일가화락(一家和樂)의 신심이므로 부부가 함께 입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주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부부가 같이 신심을 시작한 분들은 퇴전하는 경우도 적고, 부부가 함께 조직의 리더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이치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백이면 백 모든 부부가 같이 신심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연고자나 간부는 입회한 사람이 견실하게 신심을 관철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응원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서둘러 절복하면 아무래도 기본이 소홀해져, 결과적으로 새로운 인재가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가네키 씨 부부가 아오모리에서 이룬 공적

은 큼니다. 나는 부인인 기요 씨가 정성껏 만들어준 주먹밥의 맛을 잊지 못합니다.”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하고 이듬해인 1961년 2월이었다. 신이치는 하치노헤지부 결성대회를 마치고 도와다지부 결성대회에 가는 도중에 열차를 갈아타려고 아오모리역에 내렸다. 역에는 가네키 지부장과 기요 지부부인부장을 비롯해 아오모리지부의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요는 신이치 일행이 오랜 시간 열차를 타고 오느라 시장하리라고 생각하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왔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려는 일념이 최고의 배려를 낳는다.

가네키 부부는 자기보다 늘 멤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회합 장소를 제공하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역 근처에 집을 마련했다. 아오모리 시내에서 활동을 마치고 밤에 열차로 돌아가는 학회원을 보면 “날씨가 추우니 열차가 올 때까지 우리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말을 건넸다. 그리고 따뜻한 국물을 대접하고 주먹밥을 싸주기도 했다.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으면 곧바로 달려가 격려했다. 지부장 가네키 다다시가 이렇게 말했다.

“회원은 모두 존귀한 사명이 있는 부처의 심부름꾼이고,

보물 같이 소중한 사람들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죄송하다.”

아오모리의 산촌에서는 가정방문을 가면 다음에 방문할 회원 집까지 1킬로미터, 2킬로미터가 넘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부부는 쌓인 눈도 날려버리는 세찬 바람속을 씩씩하게 걸었다. 아오모리 사람의 고집 센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해, 눈보라에 더욱 투혼을 불태웠다.

‘걸은 만큼 광선유포의 길이 넓혀진다. 사람을 격려한 횃수만큼 인재의 꽃이 핀다. 움직인 만큼 복운이 쌓인다.’ 스스로 되뇌며 아오모리의 대지에 광포개혁의 깃발을 멈추지 않았다.

신이치가 깊은 감개에 젖어 이렇게 말했다.

“아오모리지부가 탄생한 지도 벌써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아오모리 광포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가네키 부부처럼 오로지 광선유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결의와 실천 없이는 광선유포의 전진도 없습니다. 드디어 학회는 지금 광선유포 총마무리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도호쿠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념을 굽히지 않는 아오모리 사람의 ‘왕고집 정신’이 빛을 발하는 시대입니다.”

1월 15일, 아오모리 시내에 50센티미터 가까이 눈이 쌓였다. 이날은 ‘성년의 날’ 경축일이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아오모리문화회관에서 신춘기념지도회를 열 예정이었다. 눈이 그치고 하늘이 개는가 싶더니 다시 눈이 흩날리고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이런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쁜 표정으로 의기양양하게 모였다.

신이치는 지도회에 앞서, 성년을 맞은 멤버를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념사진 카메라 앞에 섰다.

정장 등을 말끔히 차려 입은 앳된 청년들은 청신해 보였다. 그중에는 신이치가 아오모리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쿄에서 달려온, 소카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대학부원도 있었다.

“축하합니다!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내 희망입니다. 학회의 희망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길을 열겠습니다. 10년 뒤, 아니, 그때는 너무 멀군요. 5년 뒤에 다시 만납시다. 잊지 말고 내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미래를 부탁드립니다!”

신이치는 청년들을 보며 생각했다.

‘한사람 한사람이 빛나고 있다. 모두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청년들이 성장한다면 아오모리의 미래는 크게 열린다. 고생하며 인내력을 기르기 바란다. 고생하지 않

으면 강해질 수 없다. 타인의 괴로움을 알 수 없다. 그리고 광선유포를 향한 정열을 너무 불태우기 바란다. 자신에게 정열이 있어야 벗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수 있다. 두껍게 쌓인 고난의 눈도 녹일 수 있다.’

신이치는 성년을 맞은 멤버뿐 아니라 스태프 청년들과도 기념촬영을 했다.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롯해 초창기 동지들은 진검 승부로 투쟁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위에서 누구 한 사람 이해해주지 않아 마을에서 배척당하다시피 했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씩씩하게 절복하러 다녔습니다. 광선유포의 길은 언제나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하지만 그 눈보라를 이겨내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결의와 실천을 이어받아야만 광선유포의 별판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스태프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근황 등을 물었다. 그리고 악수를 나눈 뒤, 힘주어 이렇게 말했다.

“아오모리(靑森)의 아오(靑)는 ‘청년을 뜻합니다! 아오모리의 ’모리(森)’는 ’인재의 숲’입니다! 아무쪼록, 아오모리 청년부는 광선유포를 책임지고 일어서는 인재의 숲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짊어질 학회의 기둥은 아오



모리의 여러분입니다.”

어느 남자부원이 신이치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선생님, 최근에 친구를 입회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축하합니다. 그 친구에게 안부 전해주십시오. 잘 돌봐주세요.

홍교를 달성하는 일만큼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최고의 자비와 우정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학회의 후계자입니다. 청년에게 자절광포(慈折廣布)의 정신과 실천이 있는 한, 학회의 미래는 반석과 같습니다.”

창가학회의 신심은 법화경의 간심(肝心)인 남묘호렌게교(南無妙法蓮華經)의 어본존에 대한 절대적 확신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지용보살의 사명을 자각해 사신홍법(死身弘法)을 결의하고, 니치렌 대성인이 민중 구제를 위해 설하신 대법(大法)을 광선유포하는 불의불칙(佛意佛勅)의 단체’가 바로 창가학회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본존을 확신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창가(創價)의 ‘신심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또 절복, 홍교를 실천하지 않으면 학회의 혼은 끊어진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이어받는 데 창가사제(創價師弟)가 있고, 후계의 정도(正道)가 있다.

종문이 전쟁 때 권력과 영합하는 한편, 권위유지에만 급급해 부패하고 타락한 까닭도 어본존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종조(宗祖)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과 개조(開祖) 닛코 상인(日興上人)의 정신인 광선유포의 대원(大願)에 살아가는 자세를 잊었기 때문이다.

대법홍통(大法弘通)의 투쟁을 하지 않으면 확신의 불꽃은 타오르지 않는다. 또 환희가 주는 생명의 약동도 없다.

‘대법홍통 자절광선유포 대원성취(大願成就)’의 어본존을 드높이 내걸고 나아가는 창가의 대도(大道)에는 자비와 확신, 그리고 환희의 대화소리가 울려 퍼지고 행복의 꽃이 피어 향기롭다. 생애 지용보살이라는 금지를 가슴에 안고서 절복과 홍교의 깃발을 내걸고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창가의 용자이다.

신이치는 동행한 세키 히사오 부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호쿠에는 청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 봄이 되면 쌀인 눈을 뚫고 새싹이 일제히 얼굴을 내미는 신록의 계절이 온다. 도호쿠의 녹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청신(淸新)한 숨결이 가득하다. 도호쿠 청년들을 보면 그 초목의 힘을 느낄 수 있네..

지금은 아직 매서운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계절이다. 하지만 봄은 바로 앞까지 와 있다. 반드시 이 청년들이 쌀인 눈

을 녹이고, 21세기에는 창가의 봄을 그리고 신록의 계절을 열 것이네.”

미래를 응시하듯,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말하는 신이치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신춘 기념지도회는 오후 1시 30분이 지나서부터 시작되었다.

근행에 이어 가토리 신스케 현장을 비롯한 현간부가 인사에 나섰다.

가토리가 “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 드디어 아오모리가 광포의 젊은 무사로서 출진하는 날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부인부 대표가 생기발랄하게 이렇게 외쳤다.

“도호쿠, 그중에서도 아오모리의 사명인 광선유포의 총마무리를 위해 우리 부인부는 ‘창제 제일’ ‘실천 제일’ 단결 제일’로 명랑하게 끈기 있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철저하게 멤버들을 만나 마음을 나누고, 앞장서서 활동하겠습니다!”

그러자 신이치가 박수를 크게 치면서, 가토리 현장을 비롯한 장년부 간부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부인부가 사력을 다해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럴 때 장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겠으니 부인부 여러

분은 쉬십시오’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마지막 마무리는 장년부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습니까?”

부인부 쪽에서 큰 박수가 일었다.

장년부가 일어서면 모두 안심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남자다움이란 투장하는 것이다.”라고 외쳤다.

신춘 기념지도회에서 신이치가 지도할 순서가 되었다. 신이치는 ‘무량의경(無量義經)’을 통해 생명을 변혁하는 어본존의 공덕력을 말하자고 생각했다.

“‘무량의경’은 법화경의 개경(開經)·서분(序分: 서론)에 해당하는 가르침으로 ‘무량의는, 일법(一法)에서 생(生)하느니라.’(법화경 25쪽)라는 경문은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일법’이 바로 묘호렌게교(妙法蓮華經)이고, 나아가 니치렌 대성인이 도현하신 남묘호렌게교(南無妙法蓮華經)의 어본존입니다. 그리고 이 ‘일법’이 법화경 28품으로, 팔만법장으로, 일체법(一切法)으로 열려갑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교육·과학·정치·경제 등의 모든 학문과 사상이 ‘일법’인 묘법에 모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이치는 이렇게 서론을 말한 뒤, ‘<무량의경>의 “선남자(善

男子)여, 첫째 이 경(經)은 아직 발심하지 못한 보살에게, 능히 보리심(菩提心)을 일으키게 하느니라”(법화경 43쪽)부터 “선남자여, 이것을 이 경의 첫째 공덕이요. 불사의한 힘이라고 일컬느니라”(법화경 44쪽)까지 강의했다.

“이 글은 문저(文低)에서 보면 ‘인간의 생명을 변혁할 수 있는 어본존의 위대함 힘’을 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발심하지 못한 보살에게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살육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며, 질투하는 자에게는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재보나 명예 등에 집착하는 자에게는 그 얽매이는 마음을 버리게 합니다. 또 탐욕이 많은 자에게는 베푸는 마음을, 만심(慢心)에 가득한 자에게는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을, 타인을 원망하고 화내는 자에게는 인내심을, 태만한 자에게는 정진하는 마음을, 마음이 어지러운 자에게는 평정한 마음을, 불평이 많은 자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고 합니다.

현대는 이기주의가 소용돌이치는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냉혹할 만큼 이기주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불화가, 사회에서는 복잡한 갈등

과 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신심’에 따른 ‘생명변혁’ — 결국 ‘인간혁명(人間革命)’ 밖에 없습니다.”

도덕이나 규율, 또 제재를 강화하는 등으로 제도를 개혁해도, 생명의 깊은 곳에서 복받치는 인간의 감정이나 욕망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근원인 생명 그 자체의 변혁, 마음의 변혁이야말로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다.

스위스의 위대한 교육자 페스탈로치가 이렇게 말했다.

“기본적으로 마음을 연마하지 않는다면, 지성을 아무리 개척해도 인간은 존귀해질 수 없다.”

신이치는 힘주어 말했다.

“어본존의 힘으로 마음을 연마하고 생명을 변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좁은 견식으로 불법을 추측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본존의 무한한 힘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실천이 창제입니다. 그러므로 창제야말로 인간혁명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행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무량무변한 힘이 있는 어본존 슬하로 이끌어 ‘자타 함께의 행복을 구축하겠다.’며 밤낮으로 법전(法戰)을 전개했습니다.

다. 불법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부처의 사자로서 펼치는 실천이고, 말법에 출현한 지용보살의 행동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근원적인 개혁자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투쟁하는 여러분을 어본존이 내버려둘 리 없습니다. 숙업을 모두 이겨낼 수 있다고 강하게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인류의 역사가 ‘민중의 손으로 펼치는 생명변혁의 운동’을 반드시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아오모리에는 구습도 깊고, 여러 토속신앙이 있었다. 하지만 ‘가지기도(加持祈禱)’의 신앙이나 ‘의지하는 신앙’으로 인간을 내발적인 힘을 꽃피울 수 없다.

신이치는, 니치렌 대성인 불법이 생명변혁을 설하는 ‘인간 혁명의 종교’이고, 전 인류의 숙명을 전환해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인간을 위한 종교’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싶었다.

신이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었다.

“아오모리는 아직 흑독한 겨울입니다. 하지만 새싹은 얼어 붙은 눈 아래서 이미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인의 말씀대로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됩니다. 그러나 눈 바람이 얼마나 흑독한지 잘 알기 때문에, 봄을 맞이한 기쁨은 큼니다. 거듭 고생해 광선유포의 길을 개척한 여러분에게는 가장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행

복이 넘치고 희망이 빛나는 청신한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부디 어본존의 공덕을 받아 훌륭하게 인간혁명한 모습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라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 기쁨으로 붉게 상기된 얼굴로 눈동자를 빛내며 새로운 출발을 굳게 결의했다.

신이치는 인사를 마치자마자, 강당에 미처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 복도와 로비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악수를 나눴다. 때로는 사람들 틈에 끼어 시달리기도 했지만, 동지 한사람 한사람이 발심하여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며 온 힘을 다해 격려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털모자를 쓰고 코트 차림으로 훑날리는 눈을 맞으며 회관 주변을 돌았다. 여기저기에 학회원 몇 사람이 보였다. 길에서 회원들과 대화를 나눈 뒤, 현관부들과 함께 간담했다.

1월 16일, 신이치가 도쿄로 돌아가는 날이다. 눈도 그쳤다. 배웅 나온 아오모리 대표멤버에게 이렇게 말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오이라세에 있는 연수도량에도 가겠습니다. 오이라세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신심을 관철합시다. 광선유포의 총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신이치가 탄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차창 밖을 보니 회관 뜰에서 구름 낀 하늘 위로 무사가 그



려진 커다랗고 화려한 연이 떠올랐다. 거센 바람에도 태연하게 하늘에서 춤추는 연은 아오모리의 젊은 사자(師子)의 기개를 떠오르게 했다.

— ‘청년이여, 시련을 벗으로 삼아라. 어디까지나 인내하라. 쓰라린 고생이야말로 사람을 옥(玉)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아오모리문화회관을 뒤로한 신이치는 미사와회관을 첫 방문하고, 항공편으로 오후 3시 30분이 조금 지나서 도쿄에 돌아왔다.

신이치는 2월 초부터 18일 동안 홍콩과 인도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 준비와 함께 새해를 출발하는 본부간부회와 전국현장회의, 본부직원회합 그리고 도쿄지부간부회 등 정례행사도 연이어 잡혀 있었다. 또 그 사이사이에 국제종교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한 옥스퍼드대학교 브라이언 R. 월슨 사회학 교수를 비롯해 아비타르 싱 주일인도대사와 회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광선유포와 세계평화의 실현을 자신의 사명으로 정하고, 그 조류(潮流)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정말이지 몸이 몇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신이치는 그 많은 일을 늘 착실하게 소화했다.

사람은 큰 과제를 한번에 여러개 떠안게 되면 마음만 앞서

게 되고, 결국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인간은 한번에 한가지 일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과제나 일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는 일의 순서를 정하고 계획을 면밀히 세워, 매 순간 한가지씩 온 힘을 다해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커다란 생명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진지한 창제가 중요하다.

신이치의 하루하루는 매우 바빴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늘 여유롭게 보였다. 청년시절부터 도다 조세이 슬하에서 격무를 처리하고, 억겁(億劫)의 신로(辛勞)를 거듭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스승에게 받은 훈련 덕분이었다. 고생없이 인간을 연마할 수 없다.

문호 루쉰(魯迅)은 ‘시간은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 그에 따라 인생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가 결정된다. 시간을 가장 유효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자가 된다.

1월 19일에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문화회관에서 청신한 기운이 넘치는 1월 본부간부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일곱개의 종’이 모두 끝나는 해를 기념해, 본부장을 비롯해 합창단과 음악대 등의 대표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신이치는 뜻 깊은 한해를 맞이한 감개에 젖어, 은사 도다 조세이를 향한 마음을 말했다.

“나는 날마다 도다 선생님과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지도를 떠올리며 광선유포를 지휘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도다 선생님이 도시마공회당에서 일반강의를 하신 일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소야전답서(會谷殿答書)’를 강의해주셨습니다. ‘이 법문(法門)을 니치렌이 말하므로, 충언(忠言)은 귀에 거슬림이 도리(道理)이기에 유죄(流罪)되어 생명에도 미치었느니라. 그러나 아직 단념하지 않노라’(어서 1056쪽)라는 부분에 이르자, 선생님은 ‘아직 단념하지 않노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황송하게도 니치렌 대성인의 불자(佛子)이다. 지용보살이다. 그렇다면 우리 창가학회의 정신도 여기에 있다. 불초(不肖) 소생(所生)인 나도 광선유포를 위해서는 아직 단념하지 않았다. 대성인의 유명(遺命)을 받드는 일인 만큼, 대난이 연속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각오해야 한다!

‘용기와 인내를 가져야 한다.’ — 이 말씀은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크든 작든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광선유포의 대원(大願)을 위해 살아가는 만큼, 어떤 대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생각지도 못한 가혹한 시련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단념하지 않노라.’의 정신으로 자신이 정한 사명의 길을 용감하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물론 나도 그러한 결심입니다.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도 부디 이 어서를 인생의 지침으로 삼아 끝까지 건투하기 바랍니다.”

학회는 대전진을 계속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이치는 대난이 닥쳐올 것을 예감했다.

신이치는 1월 20일 저녁, 일본을 방문한 옥스퍼드대학교의 월슨 사회학 교수와 도쿄 시부야에 있는 국제우호회관(훗날 도쿄국제우호회관)에서 회담했다.

월슨 교수와는 지난해 12월 25일에 세이코신문사에서 대화하고, 이번이 두번째 회담이었다.

첫 번째 회담에서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는가.’가 화제에 올랐다.

교수는 ‘옥스퍼드대학교에서는 대량교육을 배제하고, 일대일 개인교육 및 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튜터제도를 도입하

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제도로 개인차가 있는 학생들을 향상시키고, 소질을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신이치는 학생 개개인에게 빛을 비추려는 정신에 공감하면서 ‘창가학회는 초창기 때부터 전통적으로 한사람 한사람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지도를 모든 활동의 기축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또 신앙과 조직의 관계도 화제에 올랐다. 신앙이 개인의 ‘내면의 자유’에 기반을 두는 반면, 조직은 자칫 인간을 외부에서 구속하게 될지도 모른다.

신이치는 조직의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각자의 신앙을 심화하는 수단으로서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교수의 견해를 물었다.

월슨 교수는 ‘그 점이 바로 종교사회학의 핵심 주제이고,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은 개요로 답변했다.

— ‘많은 교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내부적인 모순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폐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언제나 목적의식을 고양해야 함은 물론이고 성의와 진심을 다해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

요컨대, 조직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점을 늘 잊지 말아야 하며, 성의와 진심이라는 인간성의 끈끈한 유대가

조직주의의 폐해를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내용이다.

이때 나눈 대화는 실로 4시간에 달했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월슨 교수는 일본에 머물면서 국제종교사회학회가 주최한 도쿄회의에 참석하고, 각지에 있는 창가학회의 문화회관과 연수도량을 견학했다. 또 소카대학교와 소카학원도 둘러보고, 소카대학교에서는 ‘문화와 종교－사회적 견지에서 본 서양과 동양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기념강연도 했다.

그리고 1월 20일, 월슨 교수는 귀국인사차 시부야에 있는 국제우호회관으로 신이치를 찾아왔다. 교수는 ‘이번에 일본에 와서 많은 학회원을 만나보니, 창가학회가 살아 있는 종교단체로서 진지하게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이치는, ‘21세기에는 종교가 지금 이상으로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교수는, 주로 서양의 종교사정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분석하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종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말했다. 결국, 종교이탈현상이 진행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본래 종교는 인간에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신이치도 사람들의 마음이 종교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크

게 걱정했다. 근대 인도의 사상가 비베카난다가 “인간사회에서 종교를 뺀다면 무엇이 남겠는가, 짐승이 사는 숲에 지나지 않는다,”고 갈파했듯이 종교를 잃은 사회도, 인간도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서 욕망의 거센 파도에 번롱되어 어쩔 수 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인류가 다다른 곳이 과학신앙, 컴퓨터신앙, 핵신앙, 배금주의 등이었다.

하지만 한없이 비대해진 욕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앙’ 들은 정신의 황폐화와 공동화(空洞化)를 가져와 인간 불신을 조장하고, 공해와 인간소외를 발생시켰다.

과학기술과 돈을 인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쓰려면 인간의 변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 종교의 역할도 있다.

제인 비류코프는, 문호 톨스토이가 말한 ‘인간이 종교 없이 살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종교만이 선악(善惡)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 없이는, 인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오직 종교만이 이기주의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종교만이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를 없애기 때문이다.”

“다섯째, 종교만이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

이다.”

“여섯째, 종교만이 인간의 평등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 이것은 인간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실현하려면 종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회담에서 월슨 교수와 신이치는 ‘종교가 앞으로 말아야 할 사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때 신이치가 이렇게 요청했다.

“월슨 교수님에게 부탁이 있습니다만, 제삼자로서 객관적으로 창가학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주십시오. 21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인류를 위한 종교로서 학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도, 저는 겸허하게 경청하고 싶습니다.”

교수는 눈동자를 빛내며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의 이러한 발언은 종교가로서 참으로 진보적이며,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종교는 과거에 의존하다가 원리주의(原理主義)와 교조주의(敎條主義)에 빠져, 시대를 활성화하는 활력을 잃어버린다.’ — 이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교수는 “앞으로도 회장님과 의견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가까운 미래에 회담을 더 나누고, 그 내용을 대담집으로 출판하기로 동의했다.



신이치는 월슨 교수와 나눈 회담이 참으로 유익하다고 느꼈다. 많은 의견에 찬동했다. 특히 종교가 원리주의와 교조주의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며 경종을 울린 교수의 의견에 크게 공감했다.

인간도, 종교도 사회·시대와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종교의 창시자도 그 사회와 시대 속에서 가르침을 설한다. 그러므로 가르침에는 불변의 법리와 함께 각 나라나 지역의 문화와 습관 등의 차이,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가변적인 부분이 있다.

불법(佛法)은 ‘수방비니(隨方毘尼)’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불법의 본의(本義)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각 지역의 문화를 비롯해 풍속·습관·시대의 풍습에 따라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이것은 사회, 시대의 차이, 변화에 대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낼 뿐 아니라, 문화 등의 차이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존중하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수방비니’라는 관점의 결핍이 원리주의·교조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가르침을 비롯해 문화·풍속·습관 등을 모두 ‘절대 선(善)’이라고 못박고, 다양성과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세다. 그러면 결국 자신과 다른 것을 일방적으로 ‘악’이라고 단정지으며 차별하고 배척하게 된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물리학자인 파스칼은 “종교적 신념을 가질 때만큼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통찰했다. 다시 말해, 종교는 양날의 검이 된다는 인식을 잊으면 안 된다.

본래 종교는 인간의 행복과 사회번영,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존재한다. 종교의 복권(復權)이란 종교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며, 그러려면 종교의 올바른 모습을 되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스스로 끊임없이 개혁하고 향상해야 비로소 종교는 사회개혁의 위대한 힘이 되기 때문이다.

종교인이 자신이 신봉하는 가르침을 강하게 확신하는 것은 당연하다. 확신이 없으면 포교도 할 수 없고, 그 가르침을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지주로 삼을 수도 없다. 다만 그 주장에 확실한 근거가 있고, 검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뚜렷한 근거가 없는 확신은 맹신이고 독선에 지나지 않는다.

니치렌 대성인은 ‘법화경최제일(法華經最第一)’이라 하시고, 법화경의 간요(肝要)야말로 남묘호렌게교(南無妙法蓮華經)라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분명한 근거도 들지 않고 법화경을 부정하는 제종(諸宗)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셨다.

그런 대성인을 제종은 ‘독선적, 비관용적, 배타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비난이라 할

수 있다. 대성인이 히에이산(北叡山) 등 각지에서 제종(諸宗)· 제경(諸經)을 열심히 수학(修學)하시고, 문증(文證)· 이증(理證)· 현증(現證)을 바탕으로 각 가르침을 객관적으로 비교· 연구하면서 자세히 조사해 결론을 내리신 말씀이었다. 요컨대, 치밀한 검증을 바탕으로 얻은 확신이었다.

또 대성인은 제종의 승려들에게 ‘불교의 진실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폭넓게 논의하고 대화하자.’고 거듭 제안하셨다. 그리고 대성인은 “지자(智者)에게 아의(我義)가 타파되지 않는 한 채용하지 않으리라”(어서 232쪽) — ‘나보다 훨씬 뛰어난 지자가 더 올바르고 깊은 가르침을 나타낸다면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종교가 삶의 자세와 행불행을 결정짓는 근본의 가르침이므로, 독선을 철저히 배제하고 진실을 규명해 공개해야 한다.’는, 진지한 탐구와 구도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더불어 ‘절대로 법론에서 지지 않는다.’는 대확신을 바탕으로 말씀하셨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견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열린 논의를 하는 것’은 배타성· 비관용과는 전혀 다르다. 이상적인 종교비판은 종교의 가르침을 검증하고 또 향상시키는 데 오히려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공적인 자리에서 법론을 하자고 일관하여 주장하신 대성

인에 대해, 제종의 승려들은 그 제안을 거부하고 막부의 권력자와 결탁하여 박해와 탄압을 가했다.

대성인은 1253년 4월 28일, 세이초사(淸澄寺)에서 입종선언(立宗宣言)을 하시고 첫 설법 때부터 이미 ‘염불은 그릇된 가르침’이라고 지적하셨다. 당시 염불신앙은 ‘민중의 이행(易行)’으로서 제종에게 인정받은 데다, 전수염불(專修念佛)을 설하는 호넨의 문하들이 널리 유포해 크게 유행했다. ‘난행(難行)’의 반대말인 ‘이행’은 ‘행하기 쉬운 수행’을 뜻한다. 또 ‘전수염불’이란 오로지 염불만은 부르면 죽은 뒤에 서방극락정토(西方極樂淨土)에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세상은 기근이 들고 역병이 돌아, 말법사상(末法思想)을 바탕으로 하는 염세주의(厭世主義)가 만연했다. ‘이 세상은 예토(穢土)이고, 서방십만억토라는 타토(他土)에 왕생하는 길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염불신앙에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사람들을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들고, 타력에만 의지하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말하자면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어, 사회를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려는 의욕을 빼앗아버렸다. 그야말로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작용이었다.

더구나 호넨은 염불 이외의 가르침, 다시 말해 법화경을 비롯한 다른 가르침에 대해 ‘사폐각포(捨閉閣拋: 버려라, 닫

아라, 짓혀놓아라, 내던져라)’ 하라고 말했다. 호넨의 제자들은 문증·이증·현증을 모두 무시한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이러한 주장을 활발하게 펼쳤다.

법화경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처의 생명이 있다.’고 설하는 만인성불(萬人成佛)의 가르침이다. 법화경 이외의 가르침은 생명의 부분관에 불과하지만, 법화경은 생명을 빠짐없이 설명한 원교(圓敎)의 가르침이다.

이 무렵, 호넨의 제자인 염불승들이 막부의 권력자에게 아첨하면서 염불은 더욱더 번성했다. 그 사태를 방치한다면 정법(正法)은 짓밟히고, 민중은 더욱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대성인은 막부의 실권을 쥐고 있던 호조 도키요리에게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을 제출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은 염불’이라고 설한 뒤 간언하셨다.

대성인이 ‘입정안국론’을 쓰실 무렵, 가마쿠라는 대규모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기근이 이어졌으며 역병이 만연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은 최악의 사태가 이어지면, 자신이 놓인 환경과 사회에 절망을 느끼고 ‘아무리 해도 더 이상은 소용없다.’는 마음에 ‘이러한 괴로운 현실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 노력하고 궁리해서 지금의 상황을 이겨

내려고는 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며 포기하거나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만다. 그 결과, 불행이 되풀이된다.

이것은 가마쿠라시대에 ‘서방정토’를 꿈꾸는 현실도피와 ‘타력본원(他力本願)’에 빠져 노력을 포기하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말하자면 염불사상은 ‘인간이 궁지에 몰려 고뇌에 잠길 때 빠지기 쉬운 생명경향’의 상징적인 유형이기도 하다.

요컨대, 사람은 염불 지향적인 생명의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불에 동조하게 된다. 대성인은 염불을 파절하여 포기·현실도피·무기력이라는, 인간의 생명에 내제하면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마음’을 뿌리째 뽑으려고 하셨다.

대성인은 “법화경을 봉지(奉持)하는 곳을 당에도량(當詣道場)이라고 하며, 이 곳을 떠나서 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라.”(어서 781쪽)라고 외치셨다.

‘남묘호렌게교(南無妙法蓮華經)’를 부르고 신심에 힘쓰는 곳이 성불에 이르는 불도수행의 장소다.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다. 니치렌불법(日蓮佛法)은 미처 날뛰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생명력을 이끌어내어 행복을 구축하는 길을 가르친다.

그런데 대성인은 염불을 비롯해 선(禪)· 율(律)· 진언(眞言)의 가르침을 엄격히 검증하고 비판하셨지만, 법화경 이외의 다른 모든 경전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서에서 여러 경전을 인용하면서 신심의 올바른 자세 등을 설하신 점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종교의 천심(淺深), 선악(善惡), 정사(正邪)를 철저히 연구한다. 문헌이나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를 하루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중략) 그 실태를 과학적으로 조사한다.”는 지침을 보냈다. 이 글에서도 분명하듯, 창가학회는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종교에 대한 검증작업을 늘 해왔다. 그리고 조사와 연구를 거듭하고 검증을 거쳐, 니치렌불법이 ‘전 인류를 구제하고,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최고의 종교’라는 확신을 가졌다.

흔들리지 않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았다면, 사람들에게도 알려 공유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회는 포교에 힘쓰며 좌담회라는 대화의 장(場)을 중요시 하였고, 다른 종파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려고 노력했다. 그 까닭은, 이해와 공감으로 사람들에게 진실한 최고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종교는 대화의 창을 닫는다면 독선주의· 교조주의· 권위주의의 미궁에 빠져버린다. 종교는 대화가 있어야 비로소 인간소생(人間蘇生)의 빛을 발하며 민중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좌담회를 비롯한 모임에서 불법대화를 통해 ‘함께 신심을 해보고 싶다.’며 입회를 희망한다. 또 신심을 하지 않아도 대화하면서 학회에 대한 오해가 풀려, 니치렌 불법을 좋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며 진지하게 대화할수록 우리의 진심이 전해져 신뢰와 우정이 자라난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고뇌를 이겨내고 행복을 구축하기 위한 종교이다.

대성인이 “일체중생이 이(異)의 고(苦)를 받음은 모두가 이는 니치렌 일인(一人)의 고가 되느니라”(어서 758쪽)라고 말씀하셨듯이, 불법의 목적은 ‘고뇌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종교가 인간의 구제를 내건다면, 절대 인간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1979년 당시, 동서냉전의 먹구름이 세계를 뒤덮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구름 아래에는, 대국의 압력이 봉쇄당하



고 있었지만 민족이나 종교대립이라는 불씨가 존재했다. 동서대립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 하지만 그 뒤에는 민족 간의 대립과 종교 간의 대립이 한꺼번에 불을 내뿜고 인류의 앞길을 막아서게 된다는, 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난문제(難問題)가 기다리고 있다고 야마모토 신이치는 우려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정치적 차원만이 아닌, 민족·종교·문명 간에 대화의 가교(架橋)를 겹겹이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다가 제2대 회장이던 1956년, 소련의 군사개입으로 헝가리에 친소정권이 들어서는데 헝가리사건이 일어났다. 동서 양 진영의 긴장을 배경으로 한 사건이다. 이때 도다는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계를 하루 속히 만들고 싶다고 염원하며 펜을 들었다.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서로 싸우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상이 지구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처음으로 슬픈 일이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사상들이 어째서 분쟁을 낳는가?’—도다는 그 모순에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여기서 석가의 존재와 예수의 존재, 마호메트(무함마드)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서로 싸우기 위한 것은 아닐 터이다. 그렇다면 이들 성자(聖者)들이 한자리에 모인

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들 성자와 함께 마르크스와 리카도도 참석한다면, 아니 칸트와 천태대사까지 포함해 크게 회의를 연다면 절대 이러한 잘못된 협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도다는 분쟁의 원인에 대해 “사상과 종교의 창시자라는 ‘대선배’의 의견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심과 질투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혀 대중을 그르치게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게 존엄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이다. 누구나 동등하게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누구나 동등하게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본래, 그 누구도 타인의 행복과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은 ‘일체중생이 부처의 생명을 갖추었다.’고 설하는 불법(佛法)의 법리에서 나온 귀결인데, 인간구제를 목표로 하는 모든 사상과 종교도 이런 관점에서 있으리라.

도다 조세이가 말한 대로, 예수나 마호메트 등 이 세상의 현인과 성인들은 종교적·사상적인 신조는 달라도, 인간의 행복이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는 곧바로 합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합의를 기점으로 끊임없이 대화해,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편견과 차별, 미움과 증오의 실타래를 풀어 공존공영의 평화도(平和圖)를 그릴 것이 틀림없다.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종교인에게 필요한 자세는, 가르침은 달라도 각 종교의 출발점인 '구제(救濟)하려는 마음'에 서로 경의를 표하면서,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리라.

하물며 니치렌불법이 기반으로 하는 법화경은 '모든 사람은 부처의 생명을 갖춘, 비할 바 없이 존엄한 존재'라고 설한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을 신봉하는 우리는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존경해야 한다.

이 지구 상에는 사상·종교·국가·민족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인간이 살고 있다. 그 차이에 얽매어 사람을 분단하고 차별하고 배척하는 사상과 삶의 자세야말로 분쟁을 낳고, 평화를 파괴하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元兇)이고 마성(魔性)이다.

‘인간은 같은 지구민족’이라고 도다가 제창한 '지구민족주의'는, 그 마성에 저항하는 '인류결합의 사상'이다.

종교인이 되돌아가야 할 곳은 모든 차이를 제거한 '인간'과 '생명'이라는 원점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공통점에 바탕을 둔 대화’야말로 멀리 돌아가는 듯이 보이지만 ‘상호불신에서 상호이해’로, ‘분단에서 결합’으로, ‘미움에서 우정’으로 키를 크게 돌리는 평화창조의 힘이 된다.

인류는 때때로 분규사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력행사는 사태를 더욱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 원한과 증오심만 키웠을 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한편, 대화를 통한 전쟁종결과 차별철폐는 인간의 마음을 감화하는 내적인 생명변혁의 작업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강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일단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나 보복이 되풀이되면서 처참한 살육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자칫 ‘대화로 평화의 길을 열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기 쉽다. 실은 여기에 평화를 향한 최대의 관문이 있다.

불법의 눈으로 보면, 그 절망의 심연(深淵)에는 인간의 불성(佛性)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생명의 미혹, 다시 말해 원품(元品)의 무명(無明)이 있다. ‘세계 항구평화 실현’이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무명과 맞서 싸우는 대결’이다. 요컨대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으며, ‘신(信)’이냐, ‘불신(不信)’이냐.’라는 생명의 대결이라고 해도 좋다.

여기에 평화건설을 향한 우리 불법자(佛法者)의 커다란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평화를 바라는 불법자로서 중소분쟁·동서냉전 때도 소련의 코시긴 총리와 중국의 저우언라이

총리, 그리고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 등 각국의 수뇌와 적극적으로 회담을 거듭했다. 또 '종교 간의 대화'와 '문명 간의 대화'에 힘써, 21세기인 오늘날까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사회주의 국가 등의 지도자나 석학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의견을 나눴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종교·이념·국가·민족은 달라도 평화를 희구하는 마음은 모두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인간이라는 좌표축이 정해지면 평화라는 도표를 그리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하게 실감했다.

변동하는 시대 속에서 종교는 ‘사람들의 정신에 평화와 행복을 창조하는 지혜의 빛을 비춰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려면 종교인이 함께 최고의 진리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가르침을 스스로 비교·검토하고 절차탁마하는 등 향상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교는 사회와 동떨어지게 된다.

그럼 무엇을 척도로 종교를 비교하고 검증해야 하는가. 쉽게 표현하면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가, 약하게 만드는가' ' 좋게 만드는가, 나쁘게 만드는가.' '현명하게 만드는가, 어리석게 만드는가.'로 요약할 수 있다.

또 종교끼리는 '인류를 위해'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느냐를 서로 경쟁해야 한다. 다시 말해, 초대 회장 마키구치 쓰네사

부로가 제창했듯이 '인도적 경쟁'에 힘을 쏟아야 한다.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닌, '자타 함께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얼마나 '능력 있는 인재를 배출했는가.'로 공감하고 감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필요할 때는,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일도 중요하다.

신이치는 올해 '일곱개의 종'이 끝난다고 생각하자 미래를 향한 사색을 거듭하면서 21세기를 향해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 학회가, 종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종교의 올바른 자세 등을 놓고 월슨 교수와 의견을 더 나누고 싶었다.

신이치와 교수는 그 뒤에도 유럽과 일본에서 여러 차례 대담을 나누고 편지로도 의견을 나뉘, 1984년 가을에 영어판 대담집 《사회와 종교》를 영국 맥도널드사에서 발간했다.

이듬해에는 일본어판을 강담사에서 발간했다. 그 뒤로도 대담집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서양과 일본, 종교사회학자와 종교지도자라는 다른 처지의 두 사람이 나눈 대화였지만, 인류의 미래를 전망하는 정신의 공명음(共鳴音)은 훌륭한 울림을 자아냈다.

기리시마연산(連山)은 겨울 구름에 뒤덮여, 얇은 햇살이



비치는가 싶다가도 눈발이 날리는 불안정한 날씨였다.

1979년 2월 1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가고시마현의 규슈연수도랑에 있었다. 3일에는 가고시마를 출발해, 홍콩을 거쳐 인도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었다.

신이치는 5년 전인 1974년 2월과 10월에 시르벤가다 탄주일인도대사와 회담하고, 일본과 인도의 우호와 문화교류를 주제로 대화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담에서 대사는 신이치에게 인도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5년 2월, 재일인도대사관을 통해 인도문화교류위원회(ICCR)가 정식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또 12월에는 탄 대사의 후임인 에릭 곤살베스 대사와 회담할 때도 재차 인도를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신이치는 인도 측의 우정과 성의에 보답하려고 준비했다. 그리고 이해 2월에 방문이 실현되었다.

인도는 중국과 함께 거대한 인구를 자랑하는 대국이고, 종교도 80퍼센터를 차지하는 힌두교 외에도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교, 자이나교, 불교 등이 있다. 또 다민족·다언어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헌법에서는 14개 언어(당시)를 지방 공용어로 인정하고 있다.

신이치는 다양성이 풍부한, '세계연방'이라고도 해야 할 인



도의 흥룡은 인류 평화의 축도(縮圖)이자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또 무엇보다 인도는 불교의 발상지이다. 그 점에서 신이치는 큰 은혜를 느꼈다. 그러므로 민간인으로서 일본과 인도의 문화교류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인도의 발전에 공헌하겠노라고 결의했다.

인도가 낳은 시성 타고르가 이렇게 말했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은 길을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개인의 이익이나 권력을 위한 길’이 아닌, 다른 나라 형제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오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세번째가 되는 이번 인도방문은 '일곱개의 종'의 대미를 장식함과 동시에 21세기를 향해 새롭게 출발한다는, 매우 의미 깊은 세계여행이었다.

신이치는 기념할 만한 이 인도방문에 걸맞은 출발지를 어디로 해야 할지를 생각하자, 규슈가 바로 떠올랐다. 니치렌 대성인의 유명(遺命)인 '불법서환(佛法西還)'을 서원(誓願)한 은사 도다 조세이가 동양광포를 의탁한 땅이 규슈이기 때문이다.

도다는 자신이 서거하기 한해 전인 1957년 10월 13일, 후쿠오카 시내의 어느 대학교 럭비구장에서 열린 규슈총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해 3만여명의 동지 앞에서 생명력을

모두 쥐어짜내듯이 하면서 외쳤다.

"오늘의 기상과 패기로 일본 민중을 구하고, 동양의 민중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감을 담아, 특히 남자부에 "규슈 남아, 잘 부탁한다!"고 외치며 동양광포를 의탁했다.

신이치는 '일곱개의 종'이 모두 끝나는 해를 맞이한 지금, 21세기를 향한 세계광포의 새로운 출발도 '선구'를 달리는 규슈의 동지와 함께 시작하고 싶었다.

신이치는 하루 전인 1월 31일 오후 6시에 규슈연수도량에 도착했다.

규슈 대표간부들과 간담을 나누고 근행한 뒤, 혼자서 잠시 사색에 잠겼다.

밖에는 찬 비가 부슬부슬 내려 정적이 감돌았다.

신이치는 '일곱개의 종'이 끝난 뒤의 학회와 광선유포의 미래를 생각했다.

‘올해로 회장에 취임한 지 20년째를 맞는다. 일본 창가학회 건설은 거의 기반이 완성되었다. 국내의 광선유포 초석을 단단히 다졌고, 미래를 의탁할 인재도 착착 성장하고 있다. 또 학회는 불법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문화·교육 단체로서 인간주의 운동의 날개를 점점 더 크게 펼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자, 신이치는 앞으로는 세계광포에 최고로 힘

을 쏟으며 인류가 나아갈 평화의 대도(大道)를 열어야 한다고 신이치는 느꼈다.

신이치는 자기 인생의 최대 주제는 '세계광포의 기반 완성'이라고 마음을 정했다. 세계는 너무나도 크고 넓다. 빨리 그 사업에 전념하지 않으면 세계 광선유포의 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신이치의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일곱개의 종'이 모두 끝나는 지금이야말로 결단을 내릴 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2월 1일, 신이치가 참석한 가운데 '전통의 2월'을 출발하는 규슈기념간부회가 규슈연수도량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신이치는 간부회에 앞서, 연수도량 내에서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한 다리의 테이프커팅에 참석했다.

눈이 조금씩 날리면서 기리시마산들이 하얀색으로 얹게 화장을 하는 듯, 눈으로 덮여갔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자부 대표가 나무다리 입구에 쳐놓은 테이프를 잘랐다.

신이치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다리 이름은?"

다들 입을 모아 대답했다.

"아직 없습니다!"

"선생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신이치가 곧바로 이렇게 제안했다.

"일인교(日印橋)가 어떨겠습니까? 일본과 인도에 우호의 다리를 놓겠다는 의미와 결의를 담아 그렇게 지었으면 합니다." 환성이 오르고 박수가 일었다.

그리고 나서 신이치가 앞장서서 다리를 건넜다. 동행한 간부는 구두를 신은 신이치가 눈이 살짝 쌓인 다리를 건너다 넘어지면 어쩌나 하고 조마조마하면서 바라보았다. 신이치는 준비해준 동지의 진심에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다리를 건넜다.

그 사소한 행동에도 세계를 이으려는 신이치의 철학과 신념이 담겨 있었다.

— ‘성실과 성실이 서로 울리며 마음이 공명할 때, 영원한 우정의 다리가 놓인다. 이해와 타산의 결합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가랑눈처럼 덧없이 사라지고 만다. 우정의 다리야말로 인간의 유대가 되고, 더 나아가 항구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된다!’

규슈기념간부회는 오후 1시가 넘어 시작되었다. 대강당에는 ‘선생님, 인도에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라고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모인 동지는 신이치의 의의 깊은 인도방문을 규슈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에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앞쪽으로 강당으로 들어간 신이치는 따뜻한 박수를 받으며 참석자들 사이를 걸어갔다. 그리고 대강당 맨 뒤쪽까지

가서 창가에 앉았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선구 규슈’ 여러분이 단결하면서 기세 좋게 발랄하게 전진하는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인도로 출발하고 싶습니다.”

가고시마 현장과 규슈의 방면간부, 부회장이 차례로 나와 인사했다.

신이치는 강당 뒤편에서 가까이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보냈다. 그 중에는 반가운 얼굴도 있었다. 미야자키 현의 후지네 유키였다.

후지네는 초창기 때부터 미야자키에서 지구담당원(훗 지구 부인부장) 등을 역임하고, 최근에는 부인부 본부장으로서 성실히 신심에 힘쓰는 여성이었다. 신이치도 몇 번인가 만났다.

후지네는 1974년에 고락을 함께한 남편을 여의었다. 후지네를 최고로 이해해준 남편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반려이자 지역광포를 함께 개척한 동지이기도 했다.

마치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기운을 잃고 말았다. 이듬해 12월, 후지네는 규슈연수도량에서 신이치를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후지네는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보고했다.

신이치가 후지네를 이렇게 격려했다.

“슬프겠지만 그 슬픔에 지면 안 됩니다. 혼자가 되어도 영원한 행복을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남편 뒤통까지 분발해야 합니다. 남편은 투쟁하는 당신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 있으니까요.”

그 말에 후지네는 힘을 냈다.

신이치가 후지네를 만나 격려하고 3년여가 흘렀다. 신이치는 지금, 푸근하고 밝은 표정을 한 후지네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후지네 씨, 건강해 보여 다행입니다.”

“예! 실은 지난해 지도부가 되어, 지금은 본부지도장입니다.”

“그렇습니까. 무리하지 말고 건강에 유의하면서 여유를 갖고 활동에 힘써 주십시오.”

“예, 그런데 본부장일 때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날마다 개인대화로 일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의지하고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쁩니다 ….”

“굉장합니다. 나이가 들어 중심역직에서 물러나도 바쁘다는 것은, 그 조직이 단결하고 사이가 좋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는 이상입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또 당신이 ‘광선유포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하자’는 마음으

로 후배를 지키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품입니다.

언제나 불평만 늘어놓고 움직이지 않는 선배라면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정역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도 힘이 되지 못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다면 쓸쓸합니다. 조직의 역직은 모두 바뀝니다. 그러나 광선유포를 위해 일하겠다는 신심의 자세가 바뀌면 안 됩니다.”

후지네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이렇게 물었다.

“그렇지만 야마모토 선생님은 학회 회장으로 계속 계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저는 회장을 그만둘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많은 동지가 학회본부를 찾아옵니다. 해외에서 오는 요인(要人)을 응대하는 일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세계를 위해 일할 생각입니다.”

후지네의 안색이 바뀌었다. 귀를 의심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회합 중이라는 사실도 잊고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신이치는 “알았습니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후지네는 이 말이 석달 뒤에 현실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규슈기념간부회는 신이치가 강당 뒤쪽에서 지켜보는 가운

데 본부장의 포부발표 순서가 되었다. 모두 '전통의 2월'을 승리로 장식하겠다며 힘차게 결의를 발표했다.

부인부 대표로 구마모토현 구마모토미나미본부의 나리마스 게이코가 밝고 담담하게 포부를 말했다.

"우리 본부는 구마모토역을 중심으로 하여, 나쓰메 소세키의 《꽃베기》로 유명한 긴보산부터 남쪽으로는 아리아케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날마다 애마인 '광포호'를 타고 전 지역을 활기차게 누빔니다.

개인지도를 하러 다니면 회원들이 '어딜 가세요?' '저희 집에 들렀다 가세요'라고 허물없이 말해주는 인정미 넘치는 지역이 우리 본부입니다.

올해 초 저는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한사람 한사람과 철저히 대화하고 끈기 있게 격려하자, 개인대화를 추진하자'고 결의하고 실천했습니다. 이 '전통의 2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지 기대됩니다."

신이치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다! 그것밖에 없다"고 성원을 보냈다. 은사 도다 조세이가 생애 원업(願業)으로 내건 회원 75만 세대 달성의 돌파구를 열어 '전통의 2월'의 연원이 된 1952년 2월의 가마타지부 활동 — 그 승리의 핵심은 바로 철저한 개인대화였다.

신이치는 제일선 조직인 조(組)단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조를 돌면서 멤버를 철저히 격려했다. 절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멤버가 있으면 함께 불법대화를 하러 나갔다. 회원 중에는 병상에 누운 남편을 대신해 직접 일하면서, 몇 명이나 되는 자녀를 키우는 부인부원도 있었다. 실업상태인 장년부원도 있었다.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창백한 얼굴로 "저는 이제 끝장입니다."라고 고개를 떨구는 영세 공장 사장도 있었다.

모두들 고뇌에 허덕이고 있었다. 신이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심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어본존의 힘을 실감할 기회가 아닙니까! 속명전환을 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신이치의 격려를 받은 가마타지부 동지는 일기당천(一騎當千)의 투사가 되어 '2월 투쟁'에 힘썼다.

모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뇌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신심으로 이기겠다! 질 수 없다!'고 외치며 광선유포의 사명을 위해 일어섰다.

‘고뇌하는 사람이 고뇌하는 모습 그대로 결연히 일어나 벼를 격려하고 광선유포를 추진한다.’ —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큰 용기와, 큰 힘을 얻는다. 이

것이 바로 지용보살의 실상이다.

그 투쟁은 결국 한개 지부에서 한달 만에 201세대라는, 당시로서는 미증유의 흥교를 달성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2월 투쟁을 용감하게 펼친 동지가 공덕의 체험을 쌓으며 환희와 확신에 불타 고뇌를 이겨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아무리 큰 고뇌를 껴안고 있어도, 벗의 행복을 바라며 용기 있게 불법을 말하고 격려할 때, 우리 흉중(胸中)에는 지용보살의 위대한 생명이 맥동한다. 그 생명이 자신의 고뇌를 타파하고, 고뇌에 허덕이는 경애를 크게 연다.

창가학회는 격려의 세계이다. 격려는 자비의 발로이고, 이러한 실천 속에 불법이 있다. 광선유포는 격려의 스크럼을 지역과 세계로 넓히는 성업(聖業)이다.

신이치는 지금, 구마모토현 나리마스의 포부를 들으며 2년 전인 1977년 5월 구마모토를 방문해 대표간부와 간담한 그리운 추억을 떠올렸다.

그때 나리마스가 "시어머니가 네살과 두 살짜리 아이들을 봐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또 마사키본부 부인본부장은 ‘모두들 신이치가 지역을 방문한 역사를 긍지로 여기며 즐겁게 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소본부의 부인본

부장은 ‘중북부지방에만 피는 은방울꽃이 남부지방인 아소에도 피듯, 지금은 불가능하게만 여겨질지 모르지만 지역을 반드시 행복의 꽃동산으로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신이치는 구마모토의 동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강하게 곳곳이 살아 인생에서 승리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날마다 기원했다.

신이치는 규슈기념간부회에서 나리마스의 포부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구마모토도, 오이타도 종문(宗門) 문제로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날려버리듯 더욱더 광포의 불꽃을 불태우고 있다. 굉장하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지역을 돌며, 끈기 있게 신심을 관철한 멤버들을 진심을 다해 격려하고 상찬하자.'

신이치는 회합이 끝나자 ‘일곱개의 종을 총마무리하는 해를 기념해’라고 쓴 《어서전집》을 나리마스에게 선사했다.

신이치는 간부회에서 '불법자의 자세'를 말했다.

"니치렌 대성인의 지혜는 평등대혜이므로, 일체중생을 평등하게 이롭게 합니다. 이러한 대성인의 생명인 어본존을 신수하는 불자인 우리의 인생은 전 인류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행동하는 하루하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광선유포를 위해, 더 나아가 세계광포를 위해 곳곳이 달리

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나라 사람이라도, 어떤 민족의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에 놓인 사람이라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나 자신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의 심부름꾼으로서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을 넓히는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또 모든 회원을 신심 면에서 잘 이끌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등대혜인 부처의 지혜를 용현해 실천하는 곳에 세계평화로 가는 대도(大道)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 여러분은 이해력이 좋고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이기 바랍니다. 리더가 경직된 생각에 빠지면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결국에는 광선유포의 흐름을 막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엔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엘리너 루스벨트는 이렇게 지적했다.

"여러 위대한 문명이 멸망한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고정화하여 새로운 상황, 새로운 방법 그리고 새로운 생각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이치는 규슈의 동지에게 ‘광선유포를 위해 곳곳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건강하고 장수하는 인생이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그 자체가 불법의 진실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리더는 '모두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인재육성을 간절히 바란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었다.

"어디까지나 신심 제일로 사이좋게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화합의 축도입니다. 사이좋은 조직은 사람들에게 활기를 줍니다. 힘을 솟게 하는 원천입니다. 세상은 질투와 증오, 불신이 소용돌이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뢰와 존경 그리고 격려가 가득한 화기애애한 인간조직을 만들어, 그 아름다운 연대를 사회에 넓히지 않겠습니까! 이 2월도, 또 올 한해도 고락을 함께하며 나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새김시다!"

커다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밖에는 눈이 계속 내렸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의 기세가 불타오르는 장내는 그 열기로 창문에 김이 서릴 정도였다.

모두 함께 '동양광포의 노래'를 대합창했다. 규슈 동지는, 아니 모든 학회원이 "동양광포는 우리의 손으로"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드높이 부르며 광선유포에 매진해 왔다.

동양광포를 이루겠노라며 아시아로 웅비해 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 동지가 활약하는 무대는 자기 마을, 자기 지역, 자기 도시였다.

이곳을 동양광포의 선구와 모범의 천지로 만들겠노라며

현장에서 땀투성이가 되도록 한집 한집 벚의 집을 찾아가 불법대화를 나누고, 행복의 안내자가 되었다. 창가동지는 지역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면서도, 그 일념은 지구를 감싸듯 동양민중의 안온과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그리고 신이치가 해외를 방문할 때마다 대성공을 기원하며 창제했다. 한편 신이치는 동지들의 기원을 생명으로 느끼며 '모든 동지를 대표해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달렸다. 이러한 사제불이(師弟不二)의 기상이 동양과 세계를 향한 미증유의 광선유포 흐름을 만들었다.

'동양광포의 노래'가 끝나자, 중대한 사명을 안고 떠나는 인도방문단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인도의 국가(國歌)인 '자나 가나 마나'(인도의 아침)를 합창단이 불렀다.

시성 타고르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라는 어둠을 타파하고 독립의 새 아침을 맞이한 인도의 '굴하지 않는 혼의 승리'를 노래하며 '자나 가나 마나'를 작사·작곡했다. 그리고 독립한 뒤인 1950년 인도의 국가가 되었다.

합창을 시작했다. 장중한 노래였다.

그대야말로

인도의 운명을 짊어진



마음의 지배자

그대의 이름은  
잠든 나라의  
마음을 깨운다.

히말라야  
산맥에 메아리치고  
갠지스강은 노래한다.

그대의 행복을 기원하고  
그대를 칭송해 노래하네  
우리 나라를 / 구하라  
(중략)

그대에게 / 승리  
승리 / 승리 / 승리  
승리 / 그대에게

신이치가 말했다.

"참 좋은 노래이군요. 우리도 이러한 기상으로 나아갑시다!  
'그대야말로 / 학회의 운명을 짊어진 / 마음의 지배자'입니



다. 우리가 인류의 기둥이고, 안목(眼目)이고, 대선(大船)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잠든 세계의 / 마음을 깨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대에게 / 승리 / 승리 / 승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의'의 길을, '신념'의 길을, '혼의 자유'의 길을, '인류 평화'의 길을 용감하게,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위대한 혼)로 칭송받고 사랑받은 간디는, 인도 국가를 제정하기 2년 전인 1948년 1월 30일에 암살당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대국의 횡포와 압정(壓政)에 저항해 비폭력·불복종을 관철하고 독립을 이루어낸 혼은, 분명 이 노래와 함께 인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맥동했으리라.

인도 초대 총리 네루는 “간디의 희망은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은사도다 조세이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신이치의 결의이기도 했다. 도다가 서거하기 직전 병상에서 한 말을 신이치는 잊을 수 없었다.

"신이치, 상대는 세계다. 자네의 진정한 무대는 세계다."

"신이치, 살아라. 끝까지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계로 나가

야 한다."

신이치는 이 유언을 마음속에 새기고 제3대 회장으로  
일어섰다. 1960년 5월 3일, 회장취임식이 열린 니혼대학  
교강당에는 도다의 초상화가 내걸리고, 그 오른쪽에는 도  
다의 시가 묵흔 선명하게 큰 글씨로 씌어 있었다.

"이제 가련다 / 월지(月氏) 끝까지 / 묘법(妙法)을 / 넓히는  
여정에 / 마음도 힘차게"

도다는 회원 75만 세대를 달성을 향해 본격적으로 흥교에 박  
차를 가한 1952년 설에 이 시를 노래했다. 신이치는 광선  
유포를 향한 스승의 일념을 생명에 각인한다는 마음으로  
초상화를 바라보며 이렇게 맹세했다.

'생사(生死)를 초월해, 월지의 끝까지 세계광포의 여로를  
걸겠습니다.'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지 만 20년이 되는 5월 3일이 다  
가오고 있었다. 은사가 노래한 저 월지의 대지에도 수많은  
젊은 지용보살이 탄생하고 있다.

신이치는 상상은 인도를 향해 달려갔다.

— 유구한 갠지스강의 수면에 '일곱개의 종'이 울려퍼지고,  
새로운 때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청신(淸新)한 바람이 불면  
서 붉게 타오르는 불법서환(佛法西還)의 태양, 승리의 태양  
이 신이치의 눈앞에 가득 펼쳐졌다.